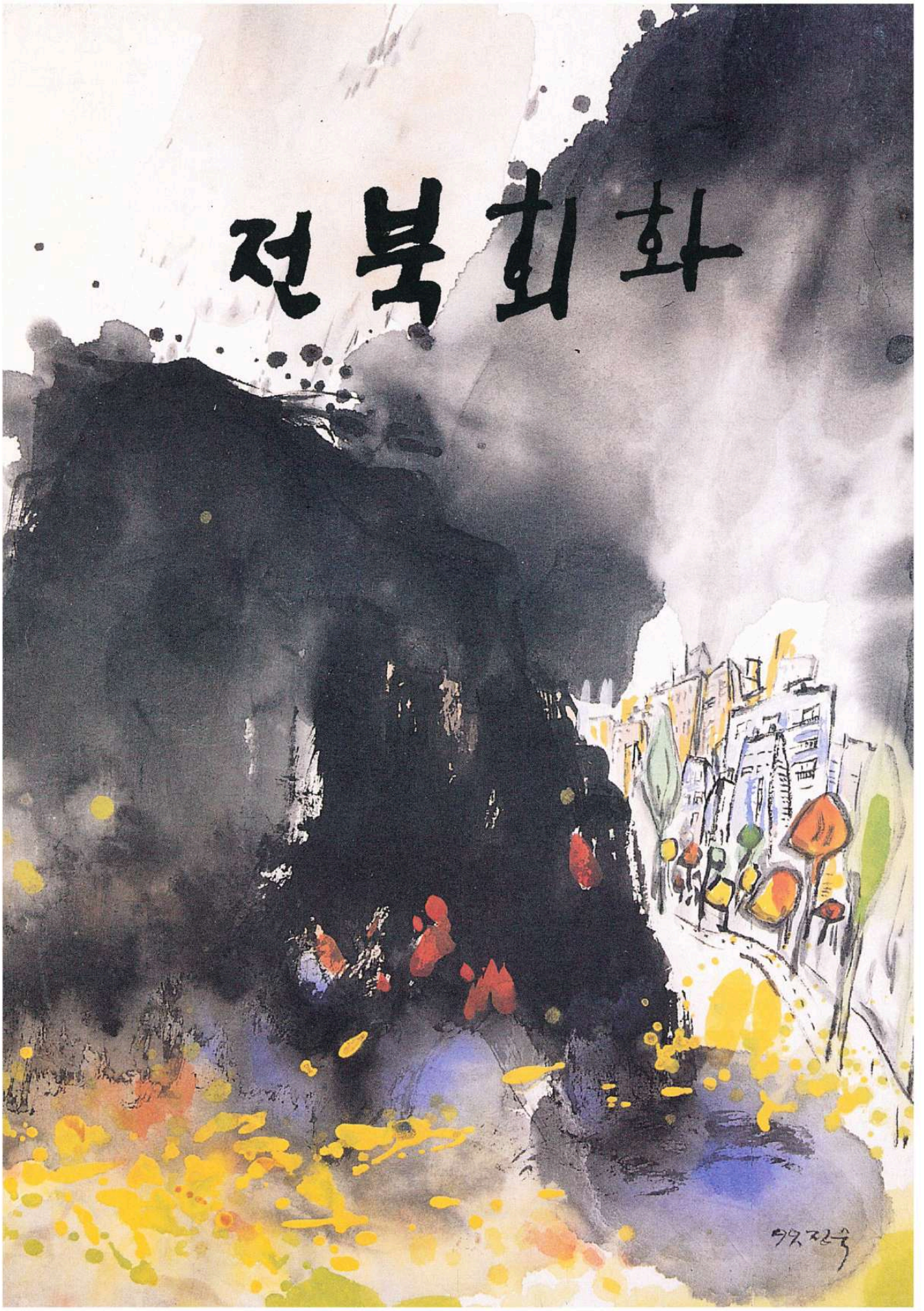

전북회화

뜨지 않는 별

복효근

별이라 해서 다 뜨는 것은 아니리
뜨는 것이 다 별이 아니듯
오히려
어둠 저 편에서
제 궤도를 지키며
안개꽃처럼 배경으로만 글썽이고 있는
뭇 별들이 있어
어둠이 잠시 별 몇개 띄워 제 외로움을 반짝이게 할 뿐
가장 아름다운 별은
높고
쓸쓸하게
죄짓듯 앓는 가슴에 있어
그 가슴 씻어내는
드맑은 눈물 속에 있어

오늘밤도
뜨지 않은 별은 있으리

복효근

-남원 출생
-91년 시전문계간지 [시와 문학] 신인상으로 등단
-95년 편운문학상(신인상부문) 수상
-시집 :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
[버마재비 사랑]

차 례

1999년 통권 제7호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전북회화회 발자취 2
▶이땅의 젊은 작가들에게-우리 그림의 발자취 -이용엽- 4
▶전시리뷰-삶의 표상으로서의 나무 -배기병- 6
심묵의 향기 -정미현- 8
해바라기(모호한 城) -이진숙- 9
전통의 현대적 창조로의 모색 -류일선- 10
▶작업실탐방- 정미현
聖과 俗의 경계를 허문채 마치 포화속의 전쟁터처럼.... -조영대- 12
▶작가노트-새천년을 향한 한국화의 전망 -최병남- 13
전통을 흡수한 용기있는 창조 -류일선- 16
▶문화초대석-단절된 문화사 접목하는 전주국제영화제 -김은정- 17
▶체험활동-도예전시전 19
도예캠프 (흙에 관한 기억 그리고 명상) -최병남- 20
한국도자의 제작과정과 문양의 특성 -심재천- 21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23
▶특별기고-전북회화회 10년의 의미 -이철량- 24
▶나의작업노트-
밧줄처럼 상호튼튼하게... -류일선- 25
상념(想念) -방정엽- 27
산 아래 세속의 인간힘에... -서진숙- 28
창가에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따스하다 -안순금- 29
생명의 노래, 부활의 이야기 Ⅳ -엄기석- 30
새장의 감옥을 열어주는 것 -이승훈- 31
비가 오는 날 -이진숙- 32
나의 작품 이야기 -이철규- 33
표정들을 하나 둘씩... -이환배- 34
수묵(水墨)은 나의 작은 우주(宇宙) -정미현- 35
끊임없이 유동하는 정, 반, 합(正, 反, 合)의 세계 -최병남- 36
▶문학과 미술-바닷가 우체국 -안도현- 38
▶전시장을 찾아서-어둠을 꿰뚫는 빛의 잔치 -장춘실- 40
나는 누구의 따뜻한 입김이 될까? -이승훈- 42
어머니와 신작로 -이경태- 44
▶나의 여행기-정말 아름다운 동해안으로의 휴가 -이진숙- 45
금강산을 다녀와서 -이철규- 47
중국 황산을 오르며 -류일선- 50
▶문화가탐방-전북지역 화랑가 안내 54
▶전북회화회 회원 주소록 및 편집후기 56

전북회화

제자: 효봉 여태명

표지작가

서 진 숙



- 전북대 미술교육과 졸
- 95년도 개인전
- 단체전및 초대전 50여차례 참여
- 한국미협, 공색회, 전북회화회 회원으로 활동중
- 삼례공업고등학교 재직
- Tel.011-683-2506
  286-2506

전북회화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히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전 · 북 · 회 · 화 · 발 · 자 · 취

1990. 3.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31~6.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4~5
스케치 여행:해남 대흥사
1991. 3.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
F.B.Feildman저, 김춘일 역 (사회:이철량)
1992. 6.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 -전시장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군산 개야도
1993. 9.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7.29
하계스케치-동상 수련장
1994. 12.12~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 열전-예루갤러리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18
세미나주제: "우리다운" 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5
정기모임
1996. 6.28~7.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12
정기총회
1997. 2.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청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28
전북 회화회전,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1998. 6
정기모임-정기 전북회화회전 계획 논의
1998. 8
하계 도예 캠프 - 기간 : 8. 6 - 8. 8 장소: 백제도예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 - 기간 : 8. 8
안내 : 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14~1.16
도예캠프 (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14
초청 세미나(주제:21c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초청강사:이철량 교수)
1999. 1.15
도예초청특강(주제"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초청강사:심재천 교수)
1999. 3.19~3.31
백제대학 기획 초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17~12.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vs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전북회화



1999년 통권 제7호
전북회화회 발행



우리그림의 발자취

-우리 조상들의 그림세계를 조명해보자-

이 용 엽

우리 민족은 옛부터 그림을 무척 좋아했다. 三國時代에는 궁궐 사찰 민가는 물론 무덤속, 가구 옷가지에 이르기까지 그림을 넣었고 심지어 평양감옥 안에도 황용도(黃龍圖)가 걸려 있었다 한다. 그 뒤 고려때 부터는 그림받기를 좋아하여 좋은 그림을 얻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이 여러 문집에 나타나고 있으며 옛 사람들은 집을 짓거나 이사를 한뒤 무당들을 초청하여 성조가(成造歌)의 "황제풀이"(黃帝)를 하였다는데 그 구전시(口傳詩)가 전해오고 있어 옮겨본다.

「도배를 한후에 그림치장 없을소냐
벽장문은 福福字 筆筒그림
다락문은 병화그림
대청을 바라보니 父母에는 千年壽요
자손은 만세영(萬世榮) 뚜렷이 붙였구나
안방을 바라보니 子孫의 만년수(萬年壽)
구봉(龜鳳)이 깃들었구나
남벽(南壁)을 바라보니 三神山 세노인이
흑백(黑白)을 들고 바둑두는 형상이요
북벽(北壁)을 바라보니 十長生이 분명하다
사각(四角) 기둥 입춘서(立春書)라
천증세월(天增歲月) 인증수(人增壽)요
춘만건곤(春晩乾坤) 복만가(福萬家)라
부엌문 위를 보니 계견사호(鷄犬獅虎)
쌍기린(麒麟)이 분명하다
광문을 바라보니
국태민안(國泰民安) 가급인족(家給人足) 분명하다
中門에 세선비요
大門에는 을지문덕(乙支文德)
진숙보(陳叔寶)가 분명하다
그림치장 한 연후에
사방 부벽이 없을소냐

이상과 같이 그림을 좋아한 민족이기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활동할 수 있었고 우리 민화(民畵)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역사를 보는 거울로써 많은 공헌을 하여 왔으나 최근에 와서 그림을 즐기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증가하는 현실로 다가왔다.

언제부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 알수는 없으나 일제 통치하의 우리문화 말살정책과 해방 후의 사회적 혼란 6.25 전쟁으로인한 민생고에 시달리다 보니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아 문화생활의 여유가 없어 그림에 관심이 멀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후 70년대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많은 아파트 건립으로 그림의 수요가 급성장 하면서 각 대학마다 미술대학을 설립하여 화가의 과잉사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반대로 그림을 즐기는 소비층은 줄어들고 그림만 양산되는 시대로 다가왔다.

물고기는 육지에서는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그림을 선호하는 시민이 없으면 활동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필자는 미술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 우리 미술의 발전에 대한 평소의 느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저 한자.

첫째 운동선수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기본적인 체력을 단련한 연후에 기본 기술을 익혀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모든 사물을 정확히 그릴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기른 연후에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아야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기초는 소홀히 하면서 남의 입상작품이나 스승의 작품 흉내를 내면서 화단에 진출하려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물오리가 육지에서 걷는데 불편하여 다른 동물에 뒤떨어 진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하고 나니 발에 달린 물갈퀴가 모두 망가져 물속에서 조차 헤엄을 칠수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우화(寓話)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자기 적성에 알맞는 분야를 본인이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화의 경우 처음부터 섬세한 모필(毛筆)을 다루기가 쉬운 일은 아니고 고통이 따르는 작업이겠지만 그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작품을 시도한다면 사상누각(沙上樓閣)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림은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되 그림 속에 깊은 철학이 담겨져야 그림을 즐기는 동호인이 사회 저변에서 확대될 것이다. 지난번 모 전시관에서 고미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집하며 미술품 감정에도 일가견이 있는 분을 우연히 만나 같이 관람한 적이 있는데 그 분(전문가)조차도 전시된 그림이 무엇을 표현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난해한 그림을 간혹 대하면서 우리 미술의 장래를 우려한 적이 있다.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 민족은 옛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그림에 대한 안목도 높다는 사실을 한시 염두에 두고 자기 혼자만이 즐기는 그림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을 그려야 한다. 그렇다고 이발소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속된 작품이 아닌 새로운 소재를 찾아 신선감을 주는 창작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사물의 근원을 정확히 알고 그려야 한다. 예를 들면 근대 화가들이 많이 그렸던 소(牛)를 생각해 보자 소는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논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운송수단으로 절대 필요한 동물로 우리 국민들과는 뗄레야 뗄수없는 재산목록 1위로 꼽힌 동물이다. 그러나 현재의 소(牛)는 비육우(肥育牛) 즉 살을 찌게 하여 소고기를 생산하는 돼지나 똑같은 용도의 동물이 되었다. 옛날 소의 상품(上品) 기준은 "천지각"(千地角)이라 하여 뿔 하나는 하늘로 위엄있게 치켜오르고 하나는 땅을 향하여 알맞게 뻗어야만 가장 인기있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上品은 멍청스럽게 뒷다리가 기둥처럼 굵고 험상스럽게 살이 쪄야만 상품(上品)의 조건이 된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물의 근원을 충분히 연구한 후에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지난 여름 글을 쓰는 친구가 서울의 모 여자대학 국문과 학생들의 답사 안내를 하였는데 학생들이 감나무를 모르고 있어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도시에서 자란 학생들이 감나무를 모르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글을 쓰려는 사람들은 글을 쓰기 이전에 자연을 공부하고 감나무 정도는 자세히 알고 연구한 연후에 감에 대한 글을 써야 참다운 글이 될 것이다. 이런 학생들이 책으로만 배운 지식으로 글을 쓴다면 과연 어떠한 글을 쓸 것인가? 상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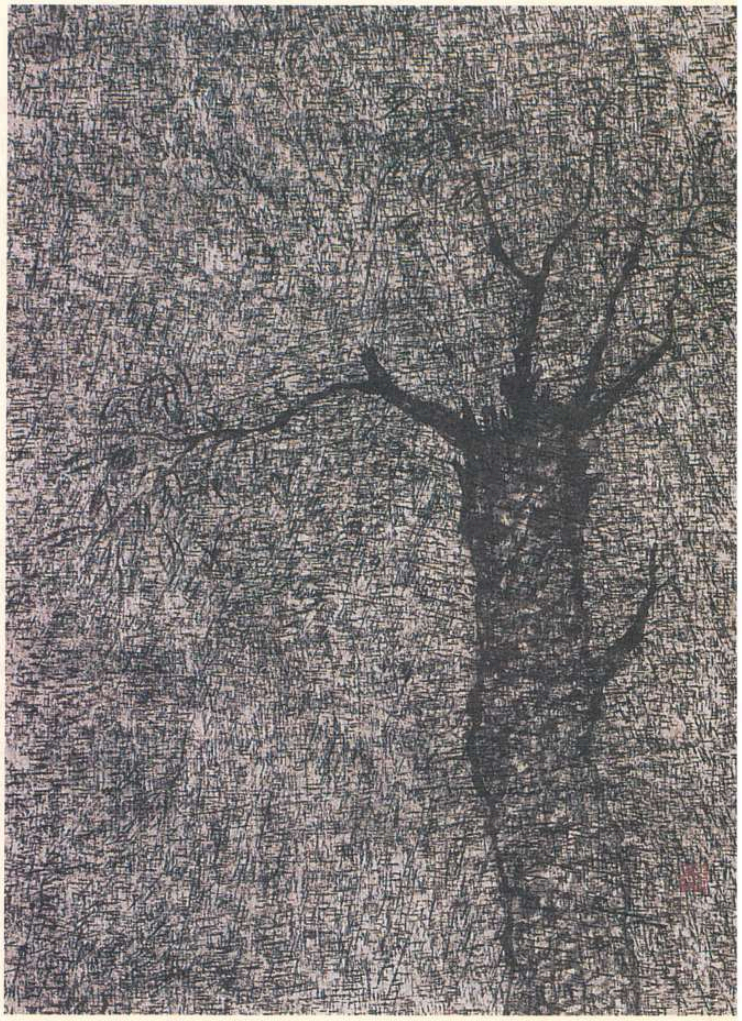
우리 유행가 가사에 "찔래꽃 붉게 피는 남쪽나라 내고향" 이런 노래가 있다. 그런 연유인지 많은 사람들이 찔레꽃이 붉은 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장미 꽃은 붉은 꽃이 있지만 찔레꽃은 흰꽃 뿐이다. 이처럼 찔레꽃의 가사(歌辭)는 잘못된게 분명하지만 문학의 표현방법에는 흰꽃도 붉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나 분명 꽃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글을 썼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잘못된 가사가 인기곡으로 지금도 계속 불러지고 있으니 이 부분을 지적하는이 조차 없이 무관심 속에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사항은 노래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림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관찰하고 사물에 담겨진 내면의 참모습까지도 깊이 연구한 후에 그려야만 후세에 길이 남을 좋은 작품이 될 것이다.

셋째, 역사적인 사명과 의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내가 그리는 이 그림이 후세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려야 새로운 그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자랑스럽게 지켜온 민족이다. 그중에서도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나타난 아름다운 색채나 우아한 의상 등 그들의 외모나 내면의 정신세계까지도 깊이 연구해야 하고 근세에 겸제 정선의 진경산수(眞景山水)의 기법, 즉 성리학의 바탕 위에 음양(陰陽)의 원리로 창안한 기법이나 시.서.화(詩書畵) 일치의 문인취향 "書拳氣 文字香"의 기법보다 심의(心意)를 중시하는 문인화(文人畵)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소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새로운 21세기 전북회화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배기병 展
삶의 표상으로서의 나무

1999.12.3-12.14 ▶ 우진문화공간



자연 / 한지. 먹. 크레파스 / 61×46

화가는 보물찾기에 뛰어든 경영자와도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것도 커다란 게임 판에서 숨겨진 보물이 무엇인지도 모른 체 찾아 나서는, 그리고 남보다 더 나은 보물을 찾아 헤메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때때로 느끼는 생각이지만 이번 배기병의 작품을 보면서 한층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보물은 무엇일까. 과연 실제하는 것일까. 아니면 허공의 뜬구름과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일까. 하지만 화가는 알고 있다.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화면에서 어떤 형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물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그래서 자기만이 찾아낼 수 있는 고유한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화가는 알고 있다.

배기병의 작품을 보면서 새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최근의 그의 작품은 붓과 크레용 등을 혼용하여 그 나름의 섬세하고 묘한 뉘앙스를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화면 중앙 전면에는 나무가 서 있다. 이 나무들은 대개는 벌거벗은 그래서 가지들이 앙상한 몸체를 그대로 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나무는 크레파스로 그려진 해질녘의 들판에 널려진 들꽃의 화려한 빛깔들을 들꽃으로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는 명멸하는 빛깔들이다. 그것은 꽃이어도 좋고, 아니면 먼 우주 속을 여행하는 어떤 빛들의 조합인지도 모른다. 나무는 구체적인 인식의 나무이지만 그가 놓여진 세계는 단순한 인식의 세계가 아니다. 광할한 대지이기도 하고 아득한 우주이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작가의 가슴에 스며있는 어떤 막막한 초현실의 세계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토록 단순하기 짝이 없는 화면의 구조를 다듬고 또 어우르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배기병의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옛날 어린 시절 동구 밖 당산나무 아래에서 해질녘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어머니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석양의 노을은 깊어 가는데 밭일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는 어린 마음은 당산나무 그늘에 묻혀 한없이 외롭고 고독했다. 그나마 이른 별빛인양 어둠 속에서 비치는 작은 빛깔을 세어가며 외로움을 털어 냈다. 그러나 40이 넘은 나이에도 고독은 지워지지 않은 것인가. 배기병은 아직도 남다른 고독의 울타리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그것은 작가만이 갖는 남다른 고독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털어 내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고독이 있다. 다름이 아니다. 살아간다는 것 곧 삶 그 자체가 고독이다. 나무는 동양인들이 추정했던 생명의 표상이다. 그래서 음양오행에서 나무(木)를 먼저 지정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이는 곧 우리 자신의 대변임에 다름이 아니다. 배기병이 그의 작품 속에서 주된 테마로 설정한 나무는 곧 바로 그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그는 화면 한 가운데에 서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그것도 지극히 어둡고 침울한 그러면서도 아주 섬세하고 내밀한 대기 속에 서있는 고독한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원초적인 고독과 처철한 삶의 의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배기병의 작품 속에서 마치 우리는 새로운 보물을 발견하듯이 우리 자신의 고독과 삶의 모습을 발견해 보게 된다.

그러나 작가는 그의 개인적인 남다른 외롭고 고독한 삶의 여정을 표출함에 있어 선택한 종이와 먹, 그리고 크레파스 등이 엮어내는 그만의 표현의 방식에 대해 밀도 있는 탐색이 필요할 것 같다. 먹과 모필과 크레파스는 애초 매우 이질적인 요소들이다. 그가 굳이 선택하고 있는 크레파스는 분명 실험적인 재료의 선택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전통회화의 실험적 방식이 질료의 개발로서만이 아니라 전통회화 그 자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실험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1999. 11.

전북대학교 교수 이 철 량

정 미 현 展

심묵의 향기

1999.4.2-4.8 ▶ 얼화랑

1999.4.2-4.30 ▶ 한마음갤러리



느티나무 145×112 천의 수묵

먹에서 매이면 색이지만, 묵을 느끼면 마음이다. 수묵은 색으로 보면 검정이지만 마음으로 보면 심묵(心默)이다.

그러므로 수묵화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향기를 피워내는 수행이다.

벽오금학도라는 책을 보면 달중에 가장 아름다운 달은 묵월(默月)이라고 말하고 있다. 항상 바라보아도 전혀 눈이 부시지 않기 때문에 묵월은 마음의 산(心山)위로 떠오르는 그리움이다.

가장 훌륭한 칼은 심검(心劍)이요 묵검(默劍)이다. 안으로는 충만하고 아름답지만 겉으로는 무광(無光)이요 무형(無形)으로 볼품이 없어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가치를 느낄 수 조차 없다.

빛의 밝음은 어둠의 묵이 배여 있어야 더 강렬하면서도 안정되게 나타나듯 수묵은 눈으로 보는 색이 아니라 마음의 아늑한 기운을 담는 영성에 대한 그리움이다.

수묵의 이런 특성 때문에 단순하고 간결하면서도 너무 진하지 않으며 담백한 맛과 그윽한 멋으러써 마음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

수년전부터 정미현님을 만나면서 그 분의 단순하면서도 곧고 바른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매사에 맺고 끊음이 분명하며 여성이지만 소나무처럼 단단한 성품을 그림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도 있다.

희망컨대 정미현님은 수묵이라는 표현형식에 매이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담긴 그윽한 침묵의 깊이와 영성의 향기를 표현되는 하나의 형식으로써 수묵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지나침으로 추해 보이지 않고 부족한 듯 하면서도 항상 넉넉한 심묵(心默)의 경지를 만나볼 수 있는 마음의 그림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한마음 병원장 최 경 수

이 진 숙 展

해바라기 (모호한 城)

1999.8.18-8.24 ▶ 공평아트센터



work-' 99 45×51 장지+채색 '99

다시시작

또다시 물을 갈았다.
붓도 씻었다.
하나씩, 하나씩,
먹도 새로 갈았다.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또 천천히... ...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또 시작하자.
그간 망설였던 이야기를 시작하자.
가슴에만 쌓아 놓고 있던 이야기를... ...
마구 토해 내자.

보고 싶은 이를 그리며
다시 만날 날을 그리며,
그 날에 할 이야기들을
하얀 바닥에 쏟아내자.

어떻게 지냈냐 건 묻지 말자.
내가 생각 나드냐도... ...
주름도 새지 말자.
흰 머리카락도 보지 말자.
그냥, 그런 그런 이야기들을
그려 나가자.
(작가 노트중에서)

류 일 선 展

전통의 현대적 창조로의 모색

1999.4.10-4.27 ▶ 민촌아트센타



개골산 만물상 / 한지. 수묵담채

회화의 본질은 자연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다. 산수화가 지닌 상징성, 은유성을 통하여 볼 때 자연과 인간과 우주의 지혜를 찾는 것이 바로 산수화의 정신세계이다.

동양회화에서 山水畵는 신비한 무궁무진한 대자연의 이치를 인간의 진의와 기운을 통하여 그 본질을 밝혀내는 것이며, 그리하여 자연의 참모습은 작가의 마음속에 내제된 신문으로 해석되어 경지를 획득하게 되는 예술의 한 장르로 여겨져 왔다.

송의 종병은 그의 화산수서에서 "성인은 신으로써 도를 발하지만 현자는 산수를 통하여 형으로써 도를 아름답게 하니 인자의 즐거움이 그렇지 아니한가!"하여 노자와 장자의 무위자연 사상과의 공통점을 표출하였다.

이번에 중국의 북경 중앙 시술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학한 후 귀국하여 근래 전시회를 갖는 류일선은 동양회화가 지니고 있는 전통의 필법과 용묵법을 능숙하게 펼치고 있는 작가로 사의적 정신세계와 문기가 충만한 뛰어난 작품세계를 보여누는 작가라 할 수 있다.

그는 우리 화단에도 이미 널리 알려진 중국의 옛 대가인 공현, 황빈흥, 이가영에게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석도의 철학과 회화사상을 바탕으로 임모와 사생을 통한 정통학습과정을 거침으로서 작가 특유의 고풍스런 회화세계를 간직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회화세계는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작품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사의적이고 문기 넘치는 정신세계이고, 둘째는 철저한 사생을 통한 현대적 감각의 실경구도이며, 셋째로 적묵법, 파묵법, 발묵법과 여러가지 실험성 기법외의 용묵법을 들 수 있다.

첫번째로 언급된 것은 최고의 정신적 경지로써 화격을 높여주는 절대적 근간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언제나 이런 정신의 도를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작품에 임하였으며 특히 호남성장가계의 화면은 천하제일교의 폭포도, 대동민거소경과 같은 진지한 자세에서 우러나오는 기운생동의 화면은 더욱더 그의 회화의 격을 심오한 세계로 이끌어 가고 있다.

두번째는 광활하고 넓은 중국대륙의 남방과 북방지역 등의 절경을 활달한 필치와 고법에 충실한 구도로 소화해내고 있는 그의 회화소재인데 남방과 북방의 여러 지형을 실제로 사생함으로써 남북종화의 원류를 이해하고 중국산천이 산수화에 끼친 영향과 그 환경에서 노는 지배적 감흥을 체험함으로써 결국에는 사상의 접근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그의 스승들인 교수는 한국에서 온 제자에게 중국의 옛 성현의 정신과 명화의 진의를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침으로써 그가 후일 임모와 사생을 거쳐 남북종화의 진수를 깨닫게 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는 계속적으로 먹점을 반복, 중첩시킴으로써 마치 근대 6대가중의 한분인 소정 변관식의 둔중한 화면세계와 같은 적묵법의 묵필법을 들 수 있다. 작품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단단한 골격의 바위의 형태와 감청색의 먹빛은 미묘한 생동감을 전해주는 한편, 윤기있는 먹색과 농담의 변화로 인하여 그의 작품세계를 더욱 중후하게 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그가 그동안에 시도했던 다양한 실험적 회화세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기회로 가다듬음으로써 예전보다 더욱더 활달하고 심원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높이 예견된다.

수묵과 담채의 절묘한 사용과 전통에 입각한 사실적 구도를 통하여 한국적 회화의 전수와 전통의 재창조 작업이 그의 손끝에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즘 작가 류일선은 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그의 진정한 실력이 후배들에게 전달되어 궁극적으로 한국 전통회화의 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또한 창작 생활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의 미술문화 교류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까닭에 그가 머지않아 우리 화단을 빛낼 훌륭한 작가로 성장할 것임을 확신하며 관심과 격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장 영 준



聖과 俗의 경계를 허문채 마치 포화속의 전쟁터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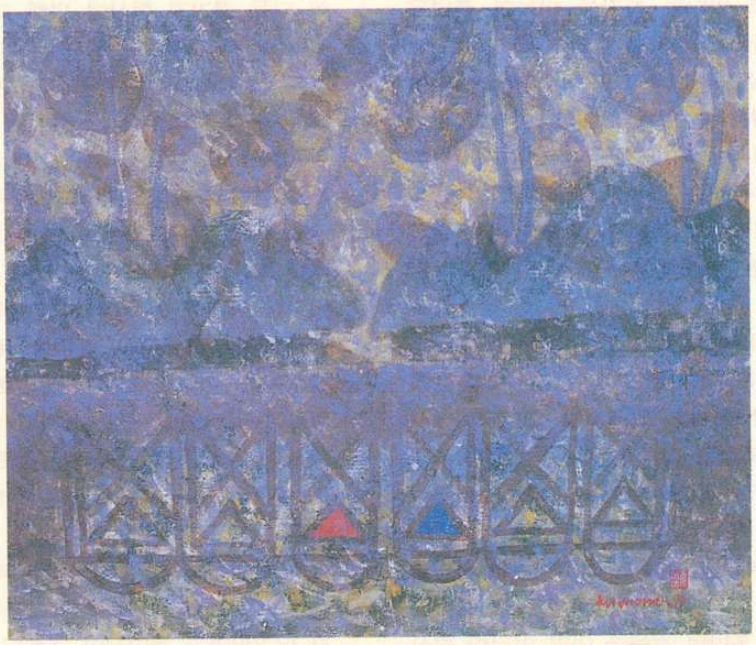
-정 미 현 작업실-

얼마전 나는 수묵작업을 주로 하는 정미현 선생의 작업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가족들과 단란하게 생활하는 공간안에 작업실은 가장 큰 안방을 익명의 성처럼 차지한채 자리하고 있어 생활공간과 창작활동의 작업공간이 聖과 俗의 경계를 허문채 마치 포화속의 전쟁터처럼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생활인으로서 시지프스의 하루 일상을 마친 뒤 마술에 걸린 신데렐라처럼 신선한 밤의 시간에서 새벽까지 작품에 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낮과 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녀의 작품세계와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녀의 낮은 구상의 세계로 작품-느티나무가 있는 마을, 반송, 작은 이야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한국적 정서와 그리움의 세계로 그녀의 밤은 비구상(추상)의 세계로 生, 시간은, 꿈, 위험한 오후, 내일은 등과 같이 도시 문명에 찌들은 현대인의 복잡한 심리 메카니즘을 축약적 상징으로 제시함으로써 낮의 세계에서는 이룰 수 없는 꿈과 소망같은 무의식의 영역을 표출하고 있다. 그녀만의 독특한 감성과 내면을 표현한 작품들, 개념, 사고, 감정, 환상, 나아가 상징과 추상적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정제된 자기의 느낌으로 낮과 밤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감를 이루며 색다른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그녀의 작업에서 매체로는 먹, 천, 한지 등이 주로 사용되는데 작업방향을 설정한 뒤 제작과정은 긋어대고 흘리고, 뿌리고, 스미고, 번지는 효과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묵이 지니는 음양의 조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할 수 있는데, 즉 서로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대상과의 결합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범치못할 성역을 지닌 듯한 아름다움을 표출하여 자연과 인생을 포용하고 끝없는 우주에 대한 탐구와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작업 목적이 매우 뚜렷하다. 보통 우연의 결과로만 여겨버리는 것을 냉정한 의식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이성에 항변하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박물관, 사적지를 찾는 여행을 좋아하고 작품소재 또한 그곳에서 찾으려 한다. 우리 것을 좋아하고 한복을 즐겨 입는 그녀를 보면 마음이 절로 풍요로워진다.

조 영 대 (서양화가)

새 천년을 향한 한국화의 전망

최 병 남



지본채묵 / '99

산다는 것은 창조적 행위와 미적 감상의 끊임없는 연속이 되며 우리들의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의 예술이며 경험하는 것 전부가 감상과 기쁨이다. 모든 예술은 많건 적건 간에 어떤 형태로든 인생을 해석하는 일이다.

예술 그 자체의 본질은 물론 예술과 사회 혹은 예술과 인간생활이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느냐는 문제를 해명해 준다. 예술가의 주요 역할의 하나는 경험에 생기를 주어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일이다. 그림의 의미는 무엇을 그린 그림이든지 간에 일반적인 의미에 의해 수정될 수 있으며 심지어 부정 될수도 있다. 그것은 어떤 사물의 그림이면서 동시에 어떤 양식의 그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과 내용의 문제는 모든 예술가들이 고민해온 문제이기도 하다.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화 화단은 다양한 구성적 인자들로 풍부한 형성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해방후 배출해낸 작가들의 수가 70년대로 오면서 급증했다는 것, 그리고 수의 급증에 따르는 양식의 난만한 공존이 수반되었다는 것이 대체로 풍부한 형성을 설명해 주는 내역이다. 이같은 형성내역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70년 국전에서 구상과 비구상의 분리심사와 전시이다. 이당시 한국화 분야에서도 구상과 비구상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화 분야에서도 구상과 비구상의 대립이 점차 예각화 되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주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구상과 비구상이 아니라 조형적 체험의 확대는 전통적 양식의 새로운 해석과 인식, 현대적 소재주의 등장, 구상과 비구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70년대 이후의 한국화의 구조적 양상이 이전이 어떤 시대보다도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띠고 있다는 것은 이시대 전반적인 미술상황과 미의식이 그 만큼 복잡한 인자를 띠고 있다는 사실과도 결부해 볼수 있을 것 같다. 이점은 현대미술이란 범주속에 한국화의 표현양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자각이 더욱더 폭넓은 시각과 깊이 있는 탐구를 가져온 요인이었지 않나 생각이 된다. 이러한 탐구의 대표적 운동이 80년대 일어나 수묵화 운동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묵화 운동은 현실적 시각에 의한 한국 자연의 재발견이라는 성과외에 수묵이 갖는 고유한 조형적 방법에 대한 관심을 고조 시켰으며 그것이 더욱 발전되어 수묵을 통한 고유한 조형 정신의 추구에로 나아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미술에 있어서 한정된 범주의 재료만으로 그 장르를 구별 하는 일은 이제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물론 본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현대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도화된 정보매체의 형성과 재료개발의 첨예화에서도 연유된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적 정형화 되어져 왔던 미술사조의 양식적 변화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이러한 경향은 해방 전부터 부단히 동, 서양화가들에 의해서 실험되어져 왔으며 80년대 후반의 경우는 이미 이러한 현상들이 화단의 전면적인 사조로 널리 확장되어 왔을 뿐 아니라 작가들의 잠재의식에 더 깊숙히 내재되어 있어 표현양식의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미술계는 이른바 포스트 모던이즘으로 불리우는 후기 현대미술의 경향이 시대적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70년대가 청명한 투명성으로 표현될수 있을 단순화와 회귀의 망각적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80년대의 채묵은 다시 그로부터 점진적인 숨결이 회생하고 포현의 손짓이 생성되기 시작하여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강열한 에네르기로 분출된 각종 표현적 작업이 대두되었던 경향이 두드러지게 눈에 띠었던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 초, 중반의 한국화 분야는 마치 거대한 물굽이나 일대 전환을 이르는 듯한 가지각색의 시행착오가 연이어 분출되었다고 한다면 후반기는 그러한 면에서 보면 그와 같은 현상들이 점차적으로 천착되어지면서 양적인 팽창보다는 보다 더 심도있는 자기 성찰의 작업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들어 한국화의 경향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다음 몇가지 현상에 의해 그 미래를 엿보이게 하였다. 먼저 지역이나 학파에 관계 없이 전면적으로 만연된 채색으로의 전환이었다. 이는 보다 더 직관적이고 표현적인 감성이 강렬한 청년세대들의 색채에 대한 전환이요 이점은 분명 산업사회에 있어서 야기되는 영역의 붕괴를 실감케 하는 징표이기도 하다.

90년대는 각종 공동화현상이 대두되었다. 표현양식이나 재료의 탈피를 통한 전체 예술영역과 밀접한 만남의 장이 이루어 졌으며 색채의 만연뿐만 아니라 비형상과 반 자연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팽창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강렬한 표현적인 몸짓과 터치들이 열광하는 듯한 해체된 형상들의 재해석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동양적인 전통의 맥락은 보다 가깝고 감각적인 순간의 몸짓에 의해 잊혀져가고 마는 것이다.

서구 일변도의 의식화 사조와 함께 대학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미술 교육의 근본적인 의식구조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동양적인 재료나 회화사상을 수용하지 못하는 철학이나 그 회화사상이 두드러지게 야기됨과 동시에 밀려오는 서구적 의식구조를 비판없이 수용함으로 인해서 민족적 회화사상과 철학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감각적이고 표피적인 색채들만 혼란스럽게 전락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

예술이란 단순히 조소나 회화나 교향악에서만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의 여러 조건을 이해하고 그 조건을 더욱 더 흥미있는 멋진 것으로 전환시키는 지적인 과정의 전부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한국화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삶을 표현해야하는 근본적인 당위성이 명확한 형태로 요구된다. 즉, 모든 개별적인 인간과 그러한 인간이 몸담고 거주하는 특정세계가 바로 그 주제인 것이다. 그리하여 회화의 주제는 화가가 살고있는 시대의 정서적이고도 지

적인 관심거리를 항상 가장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순수한 정신도 때론 빈곤한 물체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장 명석한 지혜라 해도 그 모체이며 소재인 육체와 세계에 의존치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삶과 애환이 깃든 우리의 세계, 우리 사고가 기초가 되어 그위에 성립되는 가장 한국적인 표현세계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서구적 표현양식이나 재료의 선택을 통한 피상적이고 탈 개성적인 형태의 표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할 시점에 와있다. 서구적 감각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념의 공허한 논리는 더욱더 허탈감만 더할 뿐, 나아가 표현의 자기 기만적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적이다. 이점은 우리 것에 대한 진한 애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것에 기초한 토대 위에서 무한한 표현영역은 빛을 더욱 더 발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가치 또한 독보적일 수 있는 것이다.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화는 흔돈된 사고와 표현양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사고에 맞는 표현양식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서구적인 미술사조나 표현양식의 장단점을 선별 수용하여 한국적 토대를 더욱 굳히는 계기로 삼고 더욱 더 한국적인 한국화로 거듭날 수 있는 절박한 현실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한국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전개나 진보적 행보에 있어 깊은 딜레마에 빠져있는지도 모른다. 새 천년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우리의 토양과 우리의 정신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표현영역으로 한국화의 위상을 굳혀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의 오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 전통에서 출발된 표현의 가능성을 찾아야 할 또 다른 의미의 시점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독보적이고 진취적인 한국화의 위상을 정립시켜야한다.

2,000년대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새 천년의 이미지에 걸맞는 그러한 의식과 사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제2의 또 다른 정신적 르네상스시대에 대한 기대를 우리 한국화에 걸어보고자 한다.

독후감을 받고 싶은 책

-편집부 제공-

▶한국미의 조명 : 조요한, 열화당
▶미술강의 : 김병종, 통나무
▶현대 미술의 기초개념 : 반찬국외 17명, 재원
▶그림으로보는 한국 근현대 미술
: 강성원, 사계절출판사
▶우리 궁궐 이야기 : 홍순민, 청년사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다
: 전병철, 내일을 여는 책
▶한국미술사 101장면
: 임두빈, 가람 기획
▶야! 미술이 보인다
: 서울교대 미술교육연구회, 예경
▶무량수전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 최순우, 학고재
▶정직한 관객 : 유홍준, 학고재
▶내 마음 속으 그림 : 이주헌, 학고재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에 간다
: 이원복, 효형출판
▶서양화 읽는 법 : 조용진, 사계절 출판사
▶서양미술사100장면 : 최승규, 가람기획
▶이야기 서양미술 · 서양미술이야기
: 오광수, 정우사
▶당신의 미술관 1.2
: 수잔나 파르쉬, 홍진경, 현암사
▶내 친구 빈센트 : 박홍규, 소나무
▶시대의 우울 : 최영미, 창작과 비평사

전통을 흡수한 용기있는 창조

류일선



비온 느낌 / 수묵담채

류일선은 중국에 오기 전부터 이미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꾸준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청년 화가이다. 백년 가까이 오면서 한국의 회화는 큰 발전을 가져왔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심원한 회화적 경계를 탐구하기 위하여 동방 수묵화의 근원을 찾아 중국 북경의 중앙미술대학에서 중국화 석사과정을 전공하였다.

그는 일단 이 학습기간을 통하여 "최대의 용기를 뚫고 나가리"라는 결심으로 전통 중국화의 우수하고 높은 정신과 무궁하고 오묘함을 점점 심오하게 느껴가고 있다. 또한 중국화의 전통에 관한 계통적인 학습에 몰두하고 있으며, 중국의 역대 필묵에 대해서도 독특한 풍격을 가진 화가들을 깊은 열정과 반복으로 연구학습해 왔다. 일반적으로 회화는 임모(臨摹)학습을 거쳐 풍부한 양분을 흡수하고 든든한 기초를 바탕으로 대자연속에 끊임없이 깨닫고 사생을 통한 변화와 발전을 꾀한 자신의 새로운 기법을 창조해 내어야 한다.

이것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그는 마찬가지로 지금 그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고 있다. 류일선은 중국에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남,북방의 아름다운 경치에 창작의 영감과 열정을 토로하였다. 특히 그는 사생과정중 동학들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대자연의 오묘하고 아름다운 경치에 빠져 열심히 탐구하고 섬세하게 관찰하면서 자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많이 그려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숭상하고 진실한 감정을 찾아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소재들도 풍부하고 이미지도 서로 다르다. 그림 속에서의 산은 깊이가 있고 중후하며, 웅장하고 수려하기도 하다. 나무를 위주로 그린 그림과 교차가 재미있게 표현된 나뭇가지 그림, 녹음속에 가려진 상서민가를 표현하기도 했다. 농촌의 아동이 역풍을 헤쳐가는 그림표현과 풍우의 탄복할 만한 장관의 대작.....

그 뒤에 사생을 가공하고 발전한 작품은 자연의 맛을 더욱 짙게 보여주고 있으며, 청유하고 심원하며 천진한 의경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보는 듯한 혹은, 산천을 유람하는듯한 실감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중국화 기법을 운용하는 외에도 다른 기법들을 사용하였는데 어떤 수단과 틀에도 얽매이지 않고, 서로 다른 효과를 시도한 이런 과감한 창조정신은 그의 특징이다.

류일선은 아직 젊고 해야할 일이 많으며 한·중 미술교류중 예술 발전의 과정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화로서 그는 민족의 독특한 예술품격을 창조하는 임무와 명확한 사명감으로 전력하여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바라는 류일선에 대한 희망이다. 여기에 화집 출간을 즈음하여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

1997. 7. 11 북경 면벽거(面壁居)에서

리씽젠(李行簡-지도교수)

단절된 문화사 접목하는 전주국제영화제

김 은 정 (전북일보 문화팀장)

영상문화의 정점을 향한 2000년 새로운 세기의 희망

'기억상실의 고리'로 차있는 한국영화사의 중요한 부분을 복원하는 축제

내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전주에서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과 부천에 이어 세번째로 만들어지는 국제영화제다.

한국영화의 푸른꿈.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의 화려했던 영화사를 복원하는 작업의 화두로부터 이어진 결실이다.

사실 〈전주국제영화제〉는 때늦은 감이 있다. 문화상품이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이나 자산을 바탕으로 현대에 맞게 창출해내는 것이어야 한다면 영화제가 전주에서 열리는 것은 제격이다. 전주시가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전주영화제〉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과 전통에 관심을 갖고 그 역사를 다시 찾겠다는 문화전략에 다름아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서울의 충무로가 영화문화의 유일한 영화제작의 터전이었던 그 시절에 전주는 그 어느지역도 갖지 못한 독특한 문화적 환경을 갖고 있었다. 전주는 바로 그 시절, 서울 충무로와 함께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영화문화를 꽃피웠던 지역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화사를 우리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당시 한국영화문화의 중심은 충무로, 지금도 그렇듯 이 영화인들은 충무로에 몰려있었다. 영화한편 제작하려면 엄청난 물적 인적 자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영화제작의 독특한 문화적 환경이나 기반이 없는 곳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일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바로 그때 그 시절, 충무로도 아닌, 그렇다고 모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이 집중되어 있던 서울의 그 어느 곳도 아닌 지방의 한 도시에서 영화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문화적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전주는 바로 50년대 한국영화의 또하나 중심지였던 것이다. 한국영화사에서 전쟁영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피아골〉이나 한국영화의 컬러영화시대를 열었던 한국 최초의 컬러영화 〈선화공주〉가 이지역 출신 영화인들에 의해 이곳에서 만들어졌는가하면 〈아리랑〉 〈애정산맥〉 〈성벽을 뚫고〉 〈애수의 남행열차〉 〈붉은 깃발을 들어라〉를 비롯한 흥행작들이 전주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전주의 영화인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상인 제1회 전북영화상을 만들어 영화인들을 전주로 불러모으기도 했다. 한시대를 풍미했던 인기배우들도 뒤를 이어 전주를 찾았다. 전주에서 만든 영화들은 대부분 흥행에도 성공했으며 전주의 영화인들은 충무로에서도 화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전주의 영화열기는 사그러졌고, 이제는 50년대와 60년대 전주에서 적지 않은 영화가 제작됐고 또 전주출신의 영화인들이 충무로로 진출해 한국영화사에 굵은 족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서울의 충무로와 함께 한국영화의 꽃을 피웠던 전주의 영화사가 단절된지 40여년. 세월의 단절을 접목시키는 영화축제는 이제 전주 시민들에게 또하나의 문화적 체험으로 다가온다. 지난 11월 8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최민)가 전주시 금암동 전북은행 빌딩 16층에 사무국을 마련, 문을 열었고 11월 16일에는 서울 인사동의 아트사이드넷에서 제 1회 전주국제영화제(2000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 개최 발표회가 열렸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는 '또 하나의 국제영화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전주국제영화제는 문화가

'국가대표 선수'와 같은 대표성만 필요한 종목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성립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문화의 척도는 깊이와 폭이 있는 다양성의 구현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국제영화제가 또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새로운 영화제가 기존의 영화제와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이어야 한다. 그 영화제의 취지와 프로그램이 충분히 새롭고, 영화제를 통해 영상문화의 세계를 관객의 눈 앞에 펼쳐 보여줄 수 있다면, 또 하나의 국제영화제는 존재 의미가 충분할 것이다."고 답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한다.

물론 다른 영화제와의 차별성을 지향하는 전주국제영화제는 그 성격부터가 명확하다. 그 첫번째 차별성은 대안영화(alternative cinema)의 지지에 있다. 무엇에 대한 대안인가. 전주국제영화제를 만들어가는 공동프로그래머 김소영(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 교수) 정성일(월간 키노 편집장)씨는 그것을 '영화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려진 것들에 대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내용에서, 형식에서, 세계관에서, 배급구조의 측면에서, 주류영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역동적 생명력으로 가득찬 영화들을 만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영화에 대한 지지는 전주영화제의 또하나의 차별성이다. 미래의 영화산업 핵심이 될 디지털 영화에의 주목은 전주영화제의 가장 탄탄한 전략이기도 하다. 조직위는 그러나 디지털 영화에 대한 지지는 그것이 가장 새로운 기술이기때문만이 아니라 미래의 영화에서 디지털 영화가 가장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주영화제가 내세운 또하나의 차별성은 아시아 독립영화에의 주목이다. 이 섹션은 한국영화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는 작업이다. 전주국제영화제는 궁극적으로 '아시아를 횡단하는 비집단주의적 아시아'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전주영화제가 기획한 상영프로그램은 이런 지지기반으로부터 출발한다. 메인 프로그램은 '시네마스케이프-얼터너티브 영화의 새로운 흐름', '아시아 인디 영화 포럼', '더 새로운 한국영화를 위하여' 등. 그리고 섹션 2000이라는 타이틀로 기획된 새로운 영화들이 관객들을 자유롭고 다양한 통로로 만난다.

여기에 덧붙여진 것이 특별기획 프로그램. 전주시민들의 참여로 진행될 '전주 디지털 필름 워크샵'과 한국영화 제작의 대안을 제시하는 '트랜스내셔널 토리아 프로젝트(Transnational Korea Project)', 전주의 영상문화 전통을 찾는 다큐멘터리 '지역영화사 제작', 디지털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장인 '디지털 삼인삼색'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 심포지움' 등이 다른 영화제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새로움과 즐거움을 전하게 된다.

이제 전주의 영화사는 '단절'로부터 '접목'의 시점에 놓였다. 전주에서 국제영화제가 왜 개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무의미하다. 영화계와 수많은 관객들이 '전주'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과 전주가 만들어낼 또하나의 영화축제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전주는 영상문화의 정점을 향한 2000년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한다. 그 희망은 한국영화사의 '기억상실의 고리'로 차있는 한국영화사의 중요한 부분을 복원하는 작업과 맞닿아 있다.

-김은정(전북일보 문화팀장)

백제예술대학 기획 초대전

[창립 10주년 기념]

전/북/회/화/회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문 방 서 안 엄 이 이 이 이 정 황 이 류 배 최

정 진 순 기 철 환 우 승 미 미 진 일 기 병

순 엽 숙 금 석 규 배 정 은 헌 경 숙 선 병 남

전시기간:1999. 3.16(화) ~ 3. 27(토)
전시장소:백제예술대학 백암미술관 1층 전시실
초대일시:1999. 3.16(화) 오후4시



흙에 관한 기억 그리고 명상

도예캠프

1999.1.14-1.16 ▶ 백제예술대학 도예과

흙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고향 같은 대상이며 때론 어머님의 품과 같은 포근한 안락감을 주는 단어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진다.

흙은 사람들에게 삶의 근간을 제시해 주고, 생명의 기본이 죄는 원초적인 대지로 우리 인간의 뇌리 속에 인식되어졌다.

올해 초 백제대학에서 회원들의 도예실습이 있었다. 회화를 전공한 사람들이기에 흙을 만지는 일은 그릴 친숙한 경험이 될 수 없었다. 때론 이런 이유들로 해서 막상 흙을 만지는 일은 그리 친숙한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코일링을 해서 한칸 한칸 올라가면서 어떠한 형태로 접어들 때, 때론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형태가 진행된 적도 있음을 발견했을 때 묘한 안타까움을 가진 기억들이 오히려 더 새롭게 느껴진다. 이점은 도예를 전공한 사람들에게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점들일 것이다.

어느 정도의 성형이 끝나고 초벌구이가 된 도자기 면에 그림을 그려넣는 시기가 왔다. 다양한 종류의 표현재료로 사실적, 추상적인 글들이 드려지기 시작하고 이미 흙과 그림은 한몸이 되어 그 빛을 잉태하고 있는 듯 했다.

회원들의 작품은 구상적인 형보다는 약간은 비정형적인 작품으로 회화와 도예의 연대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좋은 계기로 보여졌다.

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성질에 대해서는 그저 단편적인 인상만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회원들은 나름대로의 창조적인 자부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그 동안 너무 자기의 영역에 연연한 나머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자기 영역에 너무 빠져 있었다.

피카소가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마음껏 펼쳐왔듯이, 우리는 이제 자신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기본적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를 자기의 표현영역의 확대와 내적 성숙을 기하는 계기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도예 캠프 기간 중 우리는 특강 및 토론회를 가졌는데, 서로 진지한 질문과 대화가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색다른 경험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우리 전북회화회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초대전을 기념하는 초대전을 이 대학 미술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회원 개개인의 회화작품과 도예캠프 기간 중 제작한 도자기 등을 전시하게 되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미흡하게 보였지만, 완성된 작품으로써 전시가 되었을 때, 때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부조의 작품들은 흙으로 된 부조판이 화선지가 되어 그 위에 회원 각자의 꿈을 각인시켰다. 작가란 때론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재료나 대상에 구애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삶을 반추해 볼 때, 흙이란 우리네 삶의 원천이요 근간이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청자, 백자 등에서 느낄 수 있는 조상의 숨결에서 이어져 내려온 그 정신이 오늘에 이르러 빛을 더욱더 발하고 있다.

흙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
흙에서 느껴지는 안락감
흙에서 느껴지는 그 포근함으로
우리네 삶은 더욱 더 그 깊이를 더해 갈 것이다.

나는 오늘도 그때의 기억속으로 행복한 명상을 한다.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 흙에 대하여
때론 그 이면에 주어진
그 무언가에 대하여.....

최 병 남

-동계 전북회화회 세미나-

한국 도자의 제작과정과 문양의 특성

1999. 1. 15 ▶ 백제예술대학 공예과

심 재 천 (백제예술대학 교수)

1)개념

도자기란 한 종류이상의 점토 또는 암석의 분말을 알맞게 혼합하여 물에 반죽하여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건조시킨 다음, 높은 온도로 구워서 냉각시켜 굳어지게 한 기물을 도자기라고 한다. 또한 물이나 그 밖의 액체가 기물 밖으로 스며나오지 않도록 하고 기물 표현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한 엷은 유리질의 피막을 유약이라고 한다. 또한 도자기는 흙을 빚어 구운 모든 기물을 말하며 구울때의 온도에 따라 태토의 굳기와 발색이 각각 다르다.

그릇의 굳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토기, 도기, 석기, 자기로 구분한다.

토기는 점토질의 태토를 사용하여 섭씨 700~800도 정도내에 구운 것을 말하며, 유약을 씌우지 않았고, 표면색은 적갈색으로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토기가 이에 속한다.

도기는 800~1000도 정도로 토기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구워 물이 스며들기는 하나 몸이 비교적 단단하다. 대체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토기가 이에 속한다.

석기는 섭씨 11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소성하기 때문에 태토속에 포함되어 있는 장석이 녹아서 유리질로 변해 태토 사이로 흘러들어가 그릇의 몸이 매우 단단하며 표면색은 희청색을 띤다. 그러므로 두드리면 쇠붙이 같은 금속성의 소리가 나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경질토기가 곧 그것이다. 자기는 섭씨 1250~1350도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 태토의 유리질화가 더욱 촉진 되어 강도가 매우 높은 그릇을 말하며, 태토로는 고령토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토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B.C 600~500년 경이었다. 이 때부터 한국 도자기의 시발점으로 하여 발전을 하면서 도기, 석기가 만들어졌다. 이후 고려시대 순청자와 상감청자의 완숙기를 거쳐 세계적으로 격조 높은 도자기를 만들었으며, 이 시대에 백자를 일반 평민이 순백자와 청백자를 실용화 하면서 도자발전은 절정에 이른다. 또한 시대적 전환기를 맞는데 고려시대에서 이조시대의 전환과정에서 정부관료 중심의 지배를 받던 도자문화가 정치불안으로 자유로운 시기를 맞아 분청사기를 제작하는 과정을 맞게 된다. 이때 표현양식은 지방에 따라 문양의 표현기법에 차이를 보여 주게 된다. 또한 도공들의 개인적 미적감흥과 사고를 철학 및 애환, 정부관료들의 비판을 작품에 표현하는 지혜로운 시기를 거쳐 오늘에 한국도자기로 자리매김하여 발전을 해왔다.

2)고려도자의 문양

고려도자의 특성은 형태에서나 기면에 나타나는 빛깔과 의장문양에서 한결같이 나타나고 있는 「정적감」또는 「유한」 등을 말할 수 있다. 그러한 특성은 비단 도자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한국 미술 전반에서, 또는 생활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사려된다. 한국 미술에서의 미적 특성에 대한 표현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고요의 아름다움」 이라든지 「자연의 미」 또는 「애상의 미」 등 여러가지 표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수한 큰맛」 이란 표현도 있지만 이러한 여러가지의 표현을 집약하여 한마디로 말한다면 역시 「정적의 미」 또는 「적조 미」가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형태, 빛깔(색조), 무늬(문양)의 세가지 요소는 일반적으로 조형미술의 삼요소라 일컬어지는데, 고려도자는 이러한 세가지 구성요소가 조화를 이룸으로서 아름다움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고려인들의 생활감정을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다. 고려도자의 특징적인 무늬는 국화, 모란, 보상화문, 그리고 구름과 학, 수양버들과 물새 등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한국인의 생활 정감과 시

취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들판에 핀 야국, 한학, 포류수금 등이라 하겠다.

고려 도자무늬의 취재는 당시 귀족사회에서 유행되었던 회화의 화재에서 얻어진 것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상감청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야국문이나 연화문, 그리고 매화와 대나무 모란등의 그림소재는 중국의 송, 원대에 유행을 보았던 사군자 화법의 유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3)분청사기의 문양

아무 문양이 없는 백자를 조선조 사람들은 가장 숭상하였고 가장 아름답게 보았으며, 분청사기는 고려청자에서 변모, 발전 하였으며 문양이 다종 다양하였으나 결국 표면이 백색으로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고려청자의 문양을 사실에서 출발하였으며 점차 양식화 하였으나 사실이 갖는 의미를 계속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다.

분청사기는 고려말 청자에서 발전하였지만 그 문양은 대단히 다양하고 사실적인 것이였으며, 처음부터 대담하게 생략 변형시킨 것이었다. 이처럼 처음부터 대담한 조형의 구성이 가능하였던 것은 마치 날로 상승하는 조선왕조의 초기의 국력이 고려말의 타락하고 치졸한 문양을 변형시켰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분청사기의 기형이 지니는 선은 대담하지만 변화가 많아서 고려 청자에서 변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양은 너무 변화가 대담하고 격심하여 금방 알아보기 힘들다. 고려에서 조선왕조로 이행되는 시기는 세계적으로 청자에서 백자로 발전해 나가는 시기로 분청사기는 백분의 선택이 없었다. 그래서 그문양 자체가 소탈하면서 대담한 변형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또한 분청사기의 문양은 상감, 인화, 박지, 조화, 귀얄문 등이 모두 분청사기 제작과 일치하는 것으로 흙을 만지고 사기제작에 능숙치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졌기 때문에 도공과 생활을 같이 하는 장인의 솜씨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분청사기는 그 지방마다 사문이나 문양방법의 전개에도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4)조선백자의 특징과 문양

조선백자는 백자의 백색 자체와 여러 가지 무늬, 그리고 형태와 제작 기법 등에서 특징을 보인다. 백자의 표면색은 우유빛과 유백색, 겨울눈과 같은 설백색, 약간 푸른기가 도는 청백색 등 다양하다. 시대에 따라서 백자색은 특징있게 발색된다고 보겠으나 대체로 어느 지방의 백토인가에 의해 그색이 많이 좌우되며 유약, 소성 분위기 등에 의해서도 표면 백자색의 발색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백자의 백색은 한마디로 정의 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15세기 백자가 유백색 계통이며, 16세기가 되면 설백색, 17세기 회백색 18~19세기에는 푸른기가 도는 청백색으로 볼 수 있다.

조선백자에는 순백자, 상감백자, 청화백자, 철화백자, 진사백자, 조선청자, 기타 등의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전체를 백자라는 개념으로 묶고 그위에 어떤 안료로 그릇 표면에 그림을 그렸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양의 종류로 구분한 것이다.

- 순백자 또는 백자 : 순백자 또는 백자라고 하는 것은 청화백자니, 철화백자니 하는 것과 구별하여 그릇 표면에 아무런 무늬가 없는 순도 높은 백색의 태토와 잡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석회유를 씌워 고화도에서 구운 경질의 백자를 말한다.
- 상감백자 : 상감백자는 백자의 표면에 음각으로 무늬를 파고 여기에 자토를 넣어 검은색의 무늬를 나타낸 그릇을 말한다
- 청화백자 : 백자의 문양을 나타낼 때 코발트 안료인 회청을 써서 그림을 그린 것을 청화백자라 한다.
- 철화백자 : 철화백자는 철사로 무늬를 그려 다갈색으로 발색한 백자를 말하다.
- 진사백자 : 진사백자는 붉은색으로 발색하는 산화동으로 그림을 그린 백자를 말한다.
- 조선청자 : 조선청자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지 청자를 말한다. 이것은 백자 태토에 철분이 함유된 유약을 시유한 것으로 녹색을 띤 청자이다. 그러므로 고려청자에 비해 형태, 색문양등 서로 다른점이 있으며 제작량은 소량이다.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전북회화	한국정신
류 일 선	권 세 혁
방 정 엽	권 기 수
서 진 숙	김 선 형
안 순 금	김 태 완
엄 기 석	박 병 춘
이 우 정	박 일 현
이 승 훈	박 종 갑
이 진 숙	송 승 완
이 철 규	유 근 택
이 환 배	윤 여 환
정 미 현	이 재 열
최 병 남	이 철 량
	임 영 숙
	조 재 승
	조 현 남
	최 은 옥
	최 창 봉

▶ 1차 전주전시 : 1999.12.17(금)~12.23(목)

민촌아트센터

▶ 2차 서울전시 : 2000. 1. 5(수)~1. 14(금)

덕원미술관

전북회화회 10년의 의미

이 철 량(전북대 예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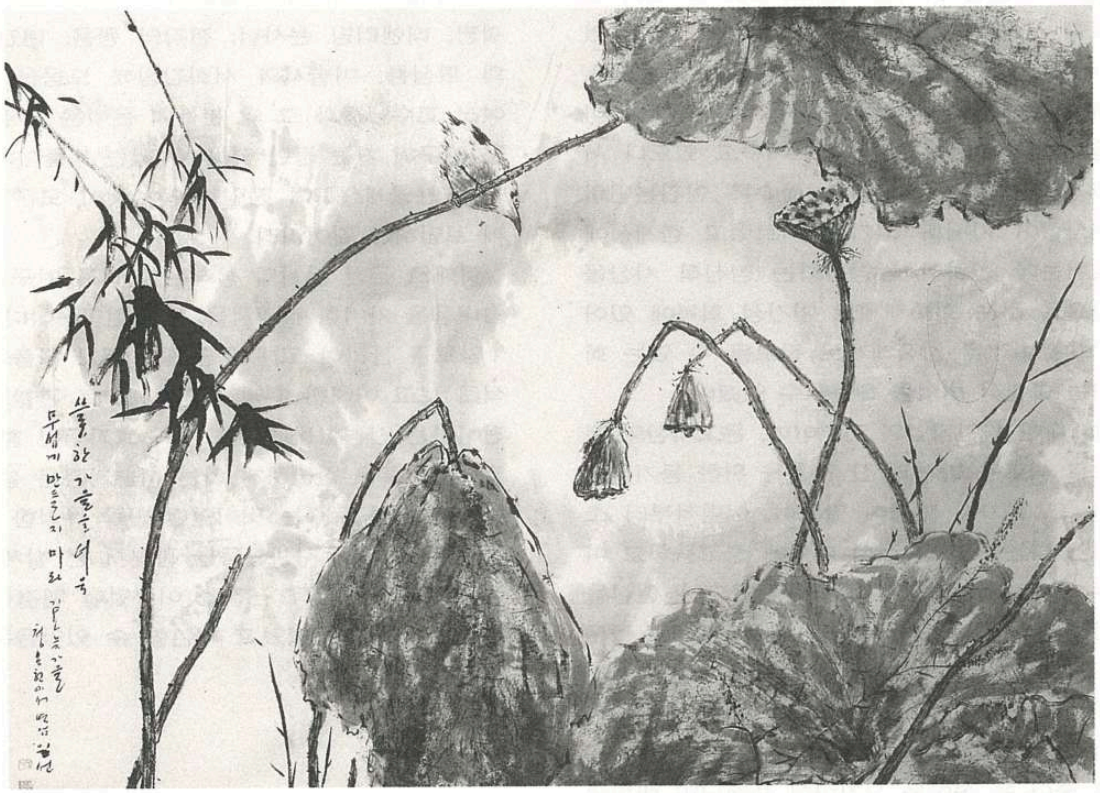
전북회화회가 10년이 되었다. 지난 10년 전 "중앙시장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면서 시작한 모임이 벌써 10년간이나 지속되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난 시간들은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었다. 때로는 이 땅을 돌아보고, 때로는 이웃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지나간 역사도 더듬어 보기도 하였다. 그러한 활동이 예를 들면 "중앙시장 사람들" "모악산을 찾아서" 등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은 지난 90년대를 이끌어 내는 이 지역, 이 시대의 젊은 화가들의 삶과 작업의 역사였다. 그들은 많은 변화를 이 지역에 심었다. 전통에 잠들어 있던 젊은 의식을 일깨웠고, 한편으로는 실험적이고 분방한 창작의 방법을 제시하여 지역의 전통미술의 흐름을 주도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창작을 통한 동아리 모임 체를 유지하며 지역간 대학간의 벽을 허물며 노력해 온 공은 칭찬 받아 마땅할 것 이었다. 정기적인 세미나와 토론 문화를 인식 시켰으며 장르의 편협한 이해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의 이러한 활동은 단지 집단적인 그룹 활동으로만 이루어 질 수는 없는 것이었다. 회원 각자가 자신들의 오늘의 실체를 성형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이 모아진 것이었다. 각기 다른 독자적인 창작의 모습을 보이는 개인전등을 통해 동 새대 들의 지향하는 바를 앞서 보여준 작가들이었다. 이렇듯 그들의 지난 10년은 젊고 부지런했다.

그들이 10년 전 이 운동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 20대 중반의 패기만만했던 신인들이었다. 이제 이들은 미술계의 중추로서 사실상 화단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작품 전시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이처럼 회화지를 만들어 가며 이 지역 미술의 소식을 전하고 점검하는 일도 했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지난 일년의 활동과 내용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자리를 만들어 공개하였다. 자신들의 각기 다른 목소리를 함께 모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아무래도 전시장으로서 만은 성에 차지 않아 회화지를 만들고 또 인터넷등 다양한 체널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보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그들 자신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 지역 젊은 미술인 들이 일구어 내야 할 여러 가지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고 또. 실천하는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처음 전주 화단에 모습을 보이던 지난 10여 년 전의 전북 한국화는 사실상 몽환의 시기였다. 오직 이상만 있었고, 현실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 미술계가 급변하던 지난 80-90년대는 숨가쁜 시간들이었다. 한국화는 내외적으로 갈등과 혼돈의 시기였다. 스스로 내적 변화를 요구받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현대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물론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물론 이러한 과제는 동. 서가 맞물려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러한 숙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요구는 지난 10여년이 그 절정에 다가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시대에 가장 예민하고 가장 열정에 가득했던 20대 젊은 작가 지망생이었던 회원들은 10년의 한 시대를 이제 다시 정리하고 또 다른 미래를 설정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인식을 할 것이다. 어쩌면 지나온 10년 보다 앞서있는 10년이 더 강력한 도전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룩한 공로에 칭찬을 거부하는,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밧줄처럼 상호튼튼하게...

류 일 선



자연의 소이/ 수묵담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천태만상이요, 각양각색이리라. 그러나 한 평생을 살면서 편안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가 원하고 바라는 바요. 어쩌면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원초적 본능 때문에 삶의 노정에서 이따금씩 행복과 번민의 갈래에서 싸워야 하는 예술의 길은 이율배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성 싶다. 가족과 가정을 위시한 틀 속에서 현실적 고통을 함께 감내해야 함을 후자의 연유에 통용해야 한다면 자기의 길을 걷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이상적 삶의 실천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의 경우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예술인들을 같은 범주에서 동등하게 해석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지만 나의 경우는 밧줄처럼 상호 튼튼하게 엮어져 연루된 생활과 예술과의 씨름에서 시간이 더 할수록 느끼고 발견할 수 밖에 없었던 누란지세격의 실력을 빌미로 유학의 등정길에 올랐었고 아직까지도 서툴

고 부족투성이지만 이렇게 부끄러운 졸작들을 주저없이 초대에 응하여 발표하는 까닭을 지면을 통하여 몇가지로 변명을 하고 싶다.

첫째로, 철의 장막이라고 불리우던 중국대륙을 여느국가보다도 그 큰 덩치의 땅덩어리 만큼이나 많고 다양한 미지의 매력도 있었고, 특히 동양회화 사상과 문화에 있어서 젖줄의 남상이었던 만큼 가장 강렬한 학구적 욕구도 함께했다. 회화에 있어서 동서문화가 빙탄지간 관계가 아님을 현대회화에서 여실이 보여주고 있으나 서구의 물질문명이 극도에 다를수록 인간본연의 의미상실이 가시화 되기에 이르렀고 한계성에 부딪치는데 반하여 동양회화는 정신적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회화세계로 인간성 회복에 있어서 보다 발전된 창작세계로 진보될 수 있는 회화라는 주관적 해석을 해 볼 수 있겠다.

이에대한 확인작업의 전환이며,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새로운 발견과 산 경험을 위한 동기부여였다, 또 한가지 덧붙여 말하며, 어릴적부터 소질이 있다는 격려와 적성 때문에 중고등학교 미술부 활동이 본격적인 출발점이었으나 현실을 우선하여 가정을 안정시키고 나서 작업을 몰두해 보려던 생각과 계획은 생각처럼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고, 자칫 만시지탄할까 하는 두려움에 "배움은 시기가 있고 빠를수록 좋다"는 속어를 상기하여 늦게나마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1학기를 마칠즈음 호구지책에 연관된 학업생활은 학위만을 위한 형식교육에 안착하려는 듯한 무의미성을 발견하고 유학을 결심하게 된 것이 환경적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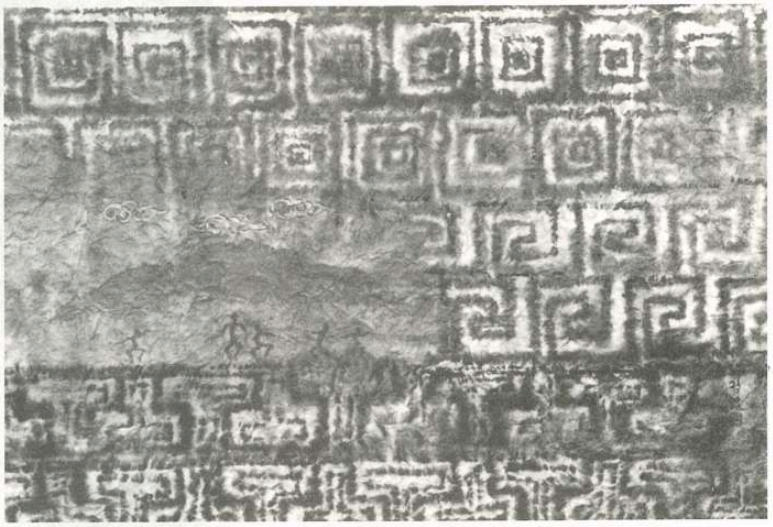
둘째로, 부족하기만한 내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때문에 욱일승천하며 심기일전 할 수 있었음을 각골난망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우선 부모님의 교훈과 배려, 아내를 비롯한 가족과 친지의 사랑이 물심양면으로 이루워졌으며, 이국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신 류재기 문화관님, 나종화 교육관님, 최수근 법무관님과 이태로님, 박태윤 목사님, 곡국경님, 조낙붕님, 정소진님, 박왕근님, 장경순님 등과 동료 혹은 화형화제들과 모두 열거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학업에 있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셨고 지도해주신 산수화의 대가 후앙륜화, 이행간, 지아여우푸 은사님과 인물화의 야오여우뚜어, 한꿔쩐, 티엔리밍 은사님, 전각의 왕용, 민간미술의 뤼성룡, 미술사와 서화감정에 도움을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그 외 분들의 은덕은 평생화업을 일구어 가는 동안 잊을 수 없는 분들이다. 더욱더 분골쇄신하여 진일보하는 것이 모든 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리라.

셋째로 금번 전시의 성격은 기법적 연구와 학습내용을 가미한 탐색성을 띤 표현작품이다.

임모를 통하여 고대와 근대의 대가 작품을 분석해 보고 이해한 후에 현장사생으로 관찰과 발견이라는 산경험을 얻음으로써 효과적인 창작으로 유도 혹은 창출하게 하는 학습과정은 실제적 감각과 효과를 주는 것이었던 만큼 유익한 시간들이었다, 특히 사생활동을 통해서 본 실체외에 동양회화의 정신적 근간을 이루었던 환경적 요인들을 느낄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음은 큰 소득이었다.



상념(想念)

방 정 엽

아이들의 재잘거림도 한풀 꺾인 교실 창가에서 기린봉을 본다. 칼날같은 한풍(寒風)은 머리 속을 맑게 씻어준다. 싸라기같은 첫눈이 내린다. 가슴이 비는 것은 아직도 십대 사춘기의 감수성이 남아있기 때문일까.

불혹이 다 되어버린 세월 .

유난히도 열병을 심하게 앓았던 학창시절이 아스라이 떠오른다. 고등학생이 되던 해 늦봄부터 방황은 시작되었다. 그림에의 열정을 외면하셨던 아버지.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은 예술의 길을 일부러 걷지 않게 하려는 속뜻을 갖고 계셨다.

자식 사랑의 심정이 그때의 내겐 반항심으로 옮겨갔다. 거기에 첫사랑의 열병, 신체장애의 컴플렉스까지 겹쳐 긴 시간을 방황했다. 입시학원도 못 다녀 선배들과 대가들의 작품을 묘사하며 붓만은 놓지 않았던 것은 다행스런 일이었다. 어렵게 미대 진학을 하게 되었지만 순수미대가 아닌 미술교육학과라는 커리큘럼에 적응이 안되어 고통스럽기도 했었다. 교통비를 다 써버리고 실기실에서 모포를 걸치고 새우잠을 자기도 했고, 밤새워 소주잔을 들며 나 자신을 학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시절에 나를 지탱해 준 것은 그림에의 꿈과 열정이었다.

아버지의 눈물과 한숨을 본 것은 시집가는 누나를 떠나보내던 날 이후 두번째였다. 가출 끝에 며칠만에 붙잡혀온 나를 보고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눈물. 학교에까지 가셔서 자식 대신 용서를 빌어 겨우 졸업을 했다. 몸도 성치 못한 자식의 마음의 굴절을 바라보신 당신 심정은 얼마나 암담하셨을까.

흐르는 세월에 모든 것이 퇴색한 나이에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른다. 늦게나마 가정을 이루고 자식까지 두었지만 이제는 뵈올 수 없으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랴. 이제 겨우 아버지의 눈물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후회일 뿐이다.

평소에 생선회에 소주 드시기를 즐겨하셨다. 내가 소주를 좋아하는 것도 아버지의 유전일지도 모른다. 차가운 이 계절, 한잔의 소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꼭 알콜 때문만은 아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가슴에 술이 흘러 들어가는 길이 보인다. 그것은 아버지의 그리움이다.

추운 겨울날 너무도 허망하게 준비도 없이 가시던 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차가운 땅 속에 당신을 모시고 돌아설 때 다짐했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산 자의 몫이라고.

이 한날 겨울의 건널목에 서서 한잔의 소주를 당신께 올린다. 옷깃을 여미어 차가운 들녘의 바람을 일부러 맞는다.



산 아래 세속의 인간 힘에...

서 진 숙

한 여름 사람들 참외 깎아먹으며
씨조차 씹어 삼킬 적에
그 중에 참외씨 하나
억센 어금니도 피하고
작은창자 큰창자 똥 속에 섞여서
죽을 고비 넘기고 넘겨
똥과 함께 길가에 버려졌다가
비바람 모진 햇볕 잘도 견뎌서
맺혀 익은 개똥참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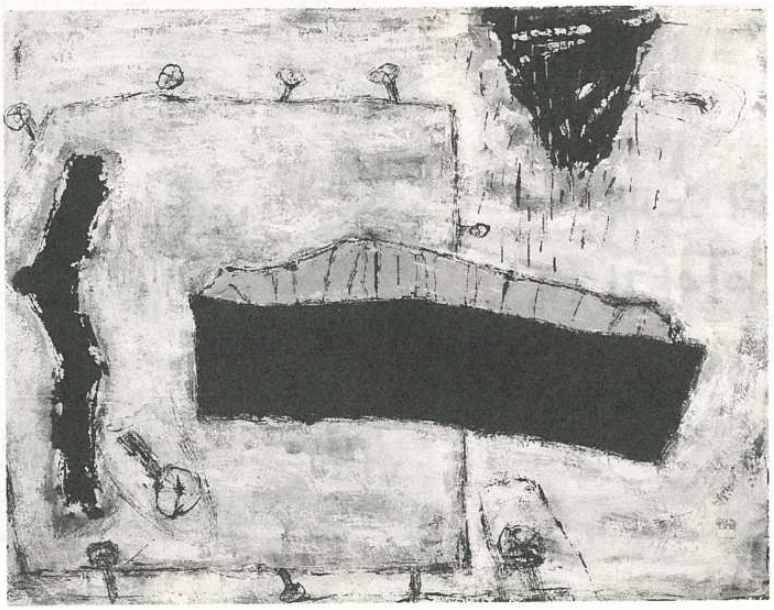
진주같은 어링 저적 추억이 있는 곳,
지금은 공사중인 잔해가 난무하고 투기꾼들이 군침을 삼키는 곳,
머지 않아 아스팔트 속에 묻혀 버릴 곳.

신호를 받기 위해 쭉쭉 뻗어있는 길을 시원스럽게 달리는 순간 "야, 눈썰매장이다." 옆에 타고 있던 조카의 즐거운 비명, 여섯살 짜리의 눈에는 분명 눈썰매장으로 보일 법도 하다.

그곳은 도로를 내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에 산허리를 감아놓은 녹색 그물망, 먼 곳에서는 분명 눈썰매장과 흡사했다. 여섯 살 짜리의 눈에 그 풍경이 아름답게 보이듯 내 가슴속에도 울긋불긋 수채화 물감을 풀어놓은 듯, 계절의 주기에 따라 진달래와 소나무, 잡풀과 머루, 산딸기, 도토리 등이 풍성한 곳
아중리, 기린봉 자락

기린봉에서 바라보는 아중저수지. 어릴 적에는 바다와 같던 곳,
참외밭, 수박밭에서 외할아버지와 아름다운 체험을 했던 기린봉 자락,
엄마의 품처럼 포근하고 청명한 영혼의 깊이를 자아내는 곳,
그 곳에 형상을 잃어가고 있다.

산아래 세속의 인간 힘에.....



창가에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다.

안 순 금

밤사이 비가 내렸다. 안개가 자욱한 미명(未明)의 시간에 아파트 계단을 내려와 문을 연다. 아침 찬 공기가 온 몸에 느껴진다.

"벌써 겨울이 왔구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자동차의 키를 돌려 시동을 건다.

찌리릭.

오늘 하루 삶이 시작되는 소리.

어제와 같은 오늘이 그저 아무렇지 않게 시작될 뿐이다.

일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사무적인 대화를 나누고, 지금까지 살아와왔던 습관으로 하루를 잘 버텨 내겠지. 그리고 그 누군가도 나와 같은 심정으로 하루를 보낼 것이다.

창가에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다. 커피 한잔을 들고 오랫동안 펴보지 않았던 화구들을 펼쳐 놓았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내가 지낸 시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습관처럼 보이듯이. 내가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림 그리는 일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내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나, 잊어버린 것이 아닌 그저 습관처럼.



생명의 노래, 부활의 이야기 Ⅳ

엄 기 석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하동 포구에 이르는 길에 시선이 멈춘다. 강물의 흐름처럼 내 삶도 고요하고 맑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눈물나게 한다. 섬진강은 맑은 눈물의 강일 것이다. 병든 마음을 씻어내고 흘어진 삶을 추스르는 정화의 강이다.

마음이 허전하고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부족한 사람들은 가보라. 하동 포구에 이르는 섬진강으로.... 새악시 처럼 수줍음을 간직한 이 강이 당신의 마음에 향기가 나는 살구꽃과 샛노란 산국 담홍색 구절초 꽃들을 띄우고 옅은 자주빛 쑥부쟁이 꽃과 더불어 당신의 삶을 채워 줄 것이며 강바람에 흔들이는 흰갈대 숲사이로 뭇별보다 많은 미색의 모래가 당신의 발바닥과 접촉될 때, 손가락 사이로 주루루 주루루 흘러내릴 때 생명의 신비와 고요함이 당신을 시원케 할 것이다.

차창 사이로 덩시렇게 다가오는 가을 산의 오묘한 능선이 눈과 마음을 또 빼앗고 잠시 정신을 혼미케 한다. 흐르는 섬진강에게 물어본다, 너는 산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아느냐고.... 산에게 물어본다. 너는 강의 침묵과 흐름과 순수함을 아느냐고. 서로 아무 말이 없다. 산과 물은 말없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눈다고, 당신은 말없는 깊은 대화속에 성숙해 가는 순수와 사랑을 아는가? 강변 사이에 갈대는 강바람에 흐느끼고 도로변의 성근 감은 겨울을 재촉하여 가을 섬진강의 맑은 물을 더 붉게 수놓았다.

물을 물답게 하고 산을 산답게 하고 강을 강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흐르는 세월이겠지. 인생에 있어서 성숙케 됨은 무엇일까? 섬진강에게 물어본다, 지리산에게 물어본다. 섬진강이 대답하기를 끊임없이 쉬지않고 흐르는데 있다고, 지리산이 말하기를 어떠한 비바람과 눈보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데 있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욕심과 야심을 벗어버리고 가을 들국화처럼 아무 것도 아닌 들꽃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가을 하늘에게 물어본다. 당신은 아무 것도 아닌 사람으로 돌아가는 의미를 아는가?

당신이 사랑하는 그이가 말하기를 "세상 영광을 구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영화가 들에 핀 들꽃보다 못하다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사랑하는 이가 기르신다"고... 돌아오는 발걸음에 지리산의 능선이, 섬진강의 물줄기가 마음 한 구석 하얀 화선지의 엷은 수묵화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침묵의 강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새긴다.

1999년 11월 3일 섬진강에서 기석



새장의 감옥을 열어주는 것

이 승 훈

이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 668통 중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바로 새장에 갇힌 새와 비슷한데 이 감옥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깊고 참된 사랑이며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백제사는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들이 살아온 역사서이다.

기분 좋은 하루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다르다. 눈이 부셔 깨어난 아침은 좋은 것은 아니다. 주변의 모든 사물이 제자리에 있고 나름대로 그 위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나의 모든 생각과 기분이 안정을 이루며, 속임수도, 천하게 보는 마음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경쟁자도 없을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건강을 헤친다고 한다. 직장의 상사에 의해, 일이 너무도 폭주하여, 시험에 있어서 등등 많은 것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것은 한낱 말하기 좋아하는 넋두리일 뿐이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자기가 만든다고 보아야 한다.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궁리하고 계획하며 실행하면서 걱정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좀더 즐겁고 여유있는 일을 선택하며, 좀 더 작은 일을 갖고, 남에게 베풀고, 세상은 살기 쉬워진다. 그러나 양보하면 뒤쳐진다는 생각이 한 발짝만 집에서 나가면 금언처럼 다가온다. 슬픈 세상이 되고 있다.

가까운 문화광장에 나가보자. 한발짝 물러서서 내 뒤를 쳐다보자. 나에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모으고, 나의 치부를 맑게 할 것은 없는지 생각 좀 하자. 우린 너무도 사악해졌다. 지구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다. 쉽고, 값비싸고, 화려하고, 유행과 테크노뮤직과 짙은 화장과 분에 넘치는 성형과 부의 과시를 위한 행사에 좇아 다니는 부류의 사이는 이 혼탁한 사회에 무엇이 진정한 것들인가?

역사 인식도 그렇다. 주변의 시간과 공간이 바로 내일의 역사이다. 백제의 역사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다. 지금도 백제의 역사는 흐르고 있다. 문화의 성장이 한 사람의 손에 좌우되어 흔들리고 저해를 받을 수도 있다. 어느 한 개인이 실권을 쥐었을 때 더 세심한 배려와 독특한 인식으로 업무에 힘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사람의 이권 때문에 문화의 성장이 더디면 안된다.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면 즐거운 것이 있어야 그날이 행복하지 않은가? 신문과 방송은 얼마나 즐거운 소식을 아침에 전하냐?

비가 오는 날

이 진 숙



work-' 99 53×45 장지+채색 '99

나는 비오는 날이 좋다.
소리없이 오는 비가 좋다.
그런 날 백열등 아래서
그려지는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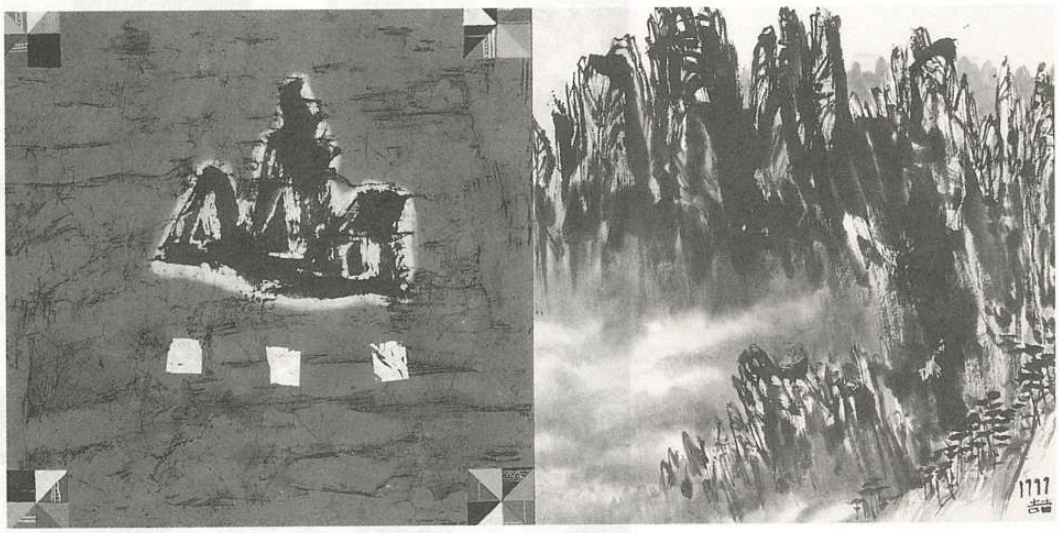
수직선을 그어가면서
마구 쏟아지는 비가 좋다.
그런 날 마구 끝에 앉아
마당에 흙이 톡톡 튀는
소리가 마음에 든다.

가늘게 떨어지는
비가 나는 좋다.
그런 날 살구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마음에 든다.

비오는 날이 나는 좋다.
곽씨부인 죽는 대목에서
마구 울어 댈 수가 있어 나는 좋다.

나의 작품 이야기

이 철 규



옛날에는... 45×45 '99

그림이란 단순히 미적대상에 대한 아름다움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움에의 찬사 이전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거나 잃어버린 사실을 일깨워주고 되찾게 해준다. 나는 그 잃어버린 사실(대상)을 과거의 존재개념으로서의 自然, 즉 현대의 물질문명과 완전히 차단된 자연(이른바 우리 고유의 정신문명이라 일컫는 민간신앙, 종교, 전설 등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숭배사상에서 유래되었다.)으로 해석하고,최근의 나의 작업에서 주로 나타나는 '산'의 형상을 빌어 자연을 극복의 대상이 아닌 순응과 조화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이미지화 하고 있다.

이러한 순응과 조화의 표현으로서 形色과 水墨을 한 화면에 혼용하는 방법 대신 각각의 화면에 따로 작업 한 후 좌우로 배치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제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기존에는 채색- 自然의 이미지, 수묵-人間의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최근의 작품에는 채색-인위적인 것(인간), 수묵-자연적인 것(자연)으로 정반대의 표현방법을 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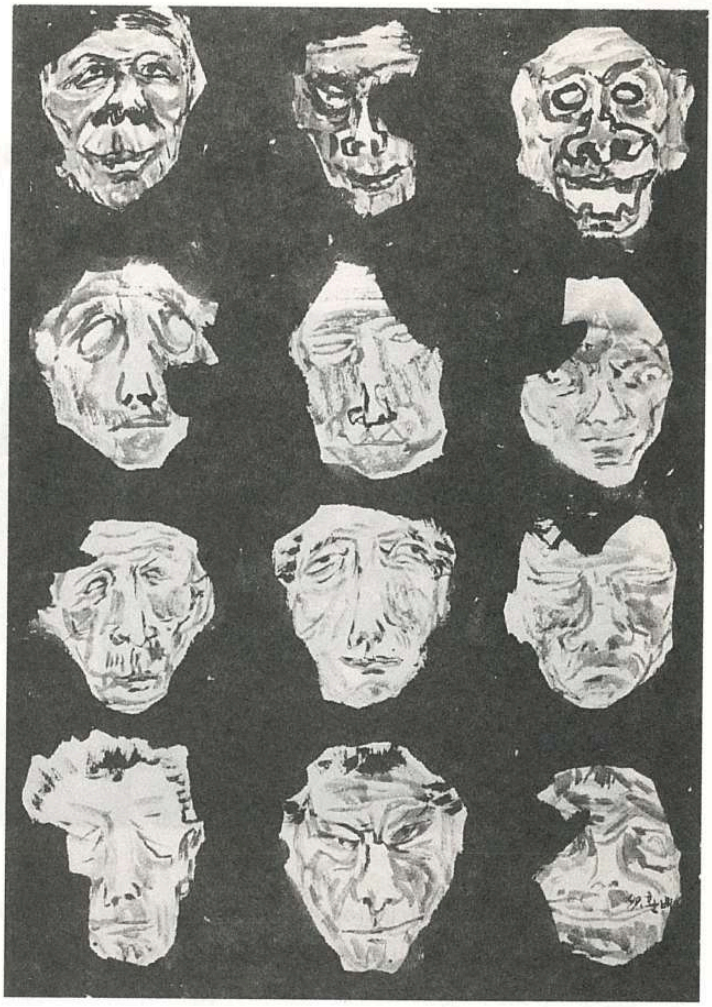
표현방법이 어떻든 결국 추구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순환적 질서와 조화를, 현대와 과거의 연계성을 의도적으로 주려 하였다. 작품에 나타나는 '山'의 書體적 표현과 風景적 표현은 금강산을 다녀온 뒤 금강산이 주는 형상과 경이에 대한 영향으로 시작되었다. 山만큼 인간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인간과 자연' 대신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으로 컨셉을 설정한 것은 작품에 나타나는 형상이 아닌 제작기법상의 인위적인 행동(크랙작업, 보자기 문양 차용, 서체등)과 자연적인 것(아교작업, 먹의 번짐, 즉흥적인 필 등)의 표현에 의해서이다.

"예술에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뿌리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 어느 사람이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라면 과거를 토대로 한 현재의 입장에서 미래의 이상이 무엇인가를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표정들을 하나 둘씩 ...

이 환 배



얼굴들-99 101×65 장지에 수묵 '99

새벽 바람이 제법 많이 추워졌음을 느낀다.

작업실로 가는 도로 옆으로 몇 그루의 은행나무 잎이 어느새 거의 다 떨어지고 몇 개만 간신히 메달려 있는 모습이 몹시도 외로워 보인다.

며칠후 이곳을 다시 스쳐 지날 때 쯤이면 다 떨어져 있겠지. 2주 전만해도 누렇게 건물 주위를 수놓았던 그들을 이젠 볼수가 없다니 왠지 서글픈 생각이 드는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주로 중,하위층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골목길은 구비구비 나 있고 초라한 기와집 사이로 간혹 양옥집이 듬성듬성 보이는 지역이다.

새벽녘이면 발자국 소리, 자전거, 오토바이 소리가 문틈사이로 스며든다. 친구와 지난 날을 이야기 하면서 한두잔 하다 보면 새벽 4, 5시에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놓는다.

외롭게 서 있는 가로등을 지나 골목길을 접어들면 이른 시각에 삶에 터전을 향해 바삐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근심걱정이 있는 모습이고 밝은 표정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왜일까. 사는게 힘들어서일까?

허스름한 청바지 차림의 아저씨, 한손에는 도시락 가방과 실장갑을 끼고 자전거를 끌고 나오는 노인, 미처 잠이 깨지 않은 얼굴로 출근하는 아가씨들.....

요즘 이들의 여러 표정들을 하나 둘씩 그려 본다

수묵(水墨)은 나의 작은 우주(宇宙)

정 미 현



생 90×50 천에 수묵 '99

오랜 시간, 수묵의 손발이 되어 墨의 교감을 지켜보는 일은 나의 일상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수묵은 언제나 서로에게 시간과 대상을 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묵이 서로의 영역을 벗어나 교감을 이루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과 질주는 나에게 색다른 호기심과 흥미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였다.

수묵의 결합은 조화로움과 경이로움이다.

수묵속에는 음양의 조화가 들어있다. 서로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대상과의 결합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범하지 못할 성역을 지닌 듯한 아름다움이 들어어있다.

자연의 넉넉함과, 인생의 까다로움마저 포용하고 있는 조화. 이것이야말로 水墨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경이로움이며,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속의 작은 우주가 아닐까 한다.

끊임없이 유동하는 정, 반, 합(正, 反, 合)의 세계

-상황선택에 의한 개념들의 화합-

최 병 남



우리의 인생은 경험의 연속이다. 경험이란, 어떤 것이든 영원 속에서 때와 장소와 기간 그리고 다채로운 에피소드를 통해 흘러가고 있다.

경험은 순간순간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온 삶인 것이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때론, 그 사이에서 방황하며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선택에 의한 경험은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그 표현 대상이 되어진다.

한 폭의 회화에 표현되어 있는 대상들은 인간 감정의 보고와 결부되어 있다는 입장에서 볼 때 존재하면서 인식되어 경험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융합과 분리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융합과 분리의 본능은 나의 작업에 있어서 하나의 영원한 동기이며 주제이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얻어지는 기쁨과 슬픔, 고뇌와 아픔, 그리고 삶과 죽음의 때론 상반된 개념은 윤회적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우주적인 순환적 논리이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껴지는 여러가지 감정의 인식이나 가치체계 또는 순응과 역류의 상황전개 또는 그 이면의 개념체계들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는 요소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때론 융합되고 때론 분리되어 순간순간 여러 형태의 상황을 연출시킨다.

나의 작업은 선택에 의한 경험에 의해 융합과 분리를, 혹은 화합과 융합을 되풀이하는 그리하여 끊임없이 유동하는 정, 반, 합(正, 反, 合)의 세계인 것이다.

경험으로 인식되어지길 갈망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반복들이 보다 더 소박한 의미의 잔잔한 화합으로 전개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보슬비가 잔잔하게 내리고 노란 은행잎이 바람결에 흩날리는 이 가을에 또 다른 선택에 대하여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한 경험에 대하여 먼 훗날 답하고 싶다.

.
.
.
.

잔잔한 미소로.....

때론 쓴웃음으로.....

바닷가 우체국

안 도 현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우체국이 있다
나는 며칠 동안 그 마을에 머물면서
옛사랑이 살던 집을 두근거리며 쳐다보듯이
오래오래 우체국을 바라보았다
키 작은 측백나무 울타리에 둘러싸인 우체국은
문 앞에 붉은 우체통을 세워두고
하루 내내 흐린 눈을 비비거나 귓밥을 파기 일쑤였다
우체국이 한 마리 늙고 게으른 짐승처럼 보였으나
나는 곧 그 게으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이곳에 오기 아주 오래 전부터
우체국은 아마
두 눈이 짓무르도록 수평선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리하여 귓속에 파도 소리가 모래처럼 쌓였을 것이었다.
나는 세월에 대하여 말하지만 결코
세월을 큰 소리로 탓하지는 않으리라
한번은 엽서를 부치러 우체국에 갔다가
줄지어 소풍 가는 유치원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다
내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우체통이 빨갛게 달아오른 능금 같다고 생각하거나
편지를 받아먹는 도깨비라고
생각하는 소년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소년의 코밑에 수염이 거뭇거뭇 돋을 때쯤이면
우체통에 대한 상상력은 끝나리라
부치지 못한 편지를
가슴속 주머니에 넣어두는 날도 있을 것이며
오지 않는 편지를 혼자 기다리는 날이 많아질 뿐
사랑은 열망의 반대쪽에 있는 그림자 같은 것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삶이 때로 까닭도 없이 서러워진다
우체국에서 편지 한 장 써보지 않고

인생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 길에서 만난다면
나는 편지봉투의 귀퉁이처럼 슬퍼질 것이다
바다가 문 닫을 시간이 되어 쓸쓸해지는 저물녘
퇴근을 서두르는 늙은 우체국장이 못마땅해할지라도
나는 바닷가 우체국에서
만년필로 잉크 냄새 나는 편지를 쓰고 싶어진다
내가 나에게 보내는 긴 편지를 쓰는
소년이 되고 싶어진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사랑을 한 게 아니었다고
나는 사랑을 하기 위해 살았다고
그리하여 한 모금의 따뜻한 국물 같은 시를 그리워하였고
한 여자보다 한 여자와의 연애를 그리워하였고
그리고 맑고 차가운 술을 그리워하였다고
밤의 염전에서 소금 같은 별들이 쏟아지면
바닷가 우체국이 보이는 여관방 창문에서 나는
느리게 느리게 굴러가다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아는
우체부의 자전거를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길이
우체국을 향해 모였다가
다시 갈래갈래 흩어져 산골짜기로도 가는 것을 생각하고
길은 해변의 벼랑 끝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훌쩍 먼바다를 건너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때로 외로울 때는
파도 소리를 우표 속에 그려넣거나
수평선을 잡아당겼다가 놓았다가 하면서
나도 바닷가 우체국처럼 천천히 늙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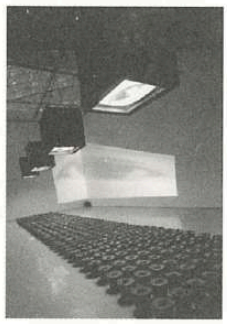
안도현

1961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원광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다.
1981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시[낙동강]이,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서울로 가는 전봉준]이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1996년 시와시학 젊은 시인상, 1998년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 [서울로 가는 전봉준] [모닥불] [그대에게 가고 싶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그리운 여우]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연어][관계][사진첩],
산문집 [외로울 때는 외로워하자] 등이 있다.

어둠을 꿰뚫는 빛의 잔치

-서울 시립미술관 '99 도시와 영상전을 보고-

장춘실 (주천상고 교사)



미술 전시장을 찾는 일은 행복한 일이다. 거리를 걷다 우연히 들른 전시장에서 좋은 작품을 만나는 것도 산뜻한 기쁨이나 계획된 나들이는 더욱 행복하다.

지난 10월 24일 우진문화공간의 미술 클럽 회원들과 함께 미술관 순례에 나섰다. 2년째 계속되는 전시장 탐방의 하나였다. 이 날 우리가 찾은 곳은 서울 지역의 미술관 및 화랑가였다. 여러 전시를 볼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나의 눈길을 사로잡은 곳은 서울 시립미술관의 특별전시장이었다.

바로, 서울 600년 기념관에서 전시중인 '99 도시와 영상전-세기의 빛' 전이다. '99 도시와 영상전' 은 3년 째 이어지는 기획전시였다. 이것은 서울시가 유일하게 지원하는 미술행사로서 참신한 기획력이 돋보여 주목 받아왔다고 한다. 지난 해의 [도시와 영상전-의,식,주 IMAGE1,2]는 한겨레신문이 뽑은 올해의 '베스트 전시' 에서 그룹분야 1위로 선택되기도 했다. -세기의 빛-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멀티미디어 아트 분야로 주제에 걸맞은 빛의 잔치를 펼쳐 보이고 있었다. 비디오, 컴퓨터, 사진, 홀로그램, 오브제 설치 등 영상매체들이 유기적인 동선구성과 재미난 공간의 배치를 통해 관람객들을 맞아주었다. -조금은 낯설게, 혹은 어리둥절하게- 컴컴하고 좁은 통로는 놀이동산의 요술동굴속 미로처럼 얽혀져 관람객을 긴장시켰다.

제1전시공간 : '탐구하는 빛' 을 부제로 권순한, 김영진, 신현중, 염은경 등 총 19명의 작가들의 작품이 있었다. 이 공간은 전시장 가운데로 이어진 주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이리저리 연결된 좁은 골목의 방에 작품을 배치 뜻밖의 효과를 주었다. 밀실에서 어둠을 뚫고 쏟아지는 강렬한 빛은 눈부시고,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색색의 빛을 투영시킨 물그릇이 놓여진 허은경씨의 [빛을 비추다]는 관람객에게 무척 친절했다. 관람자가 직접 물을 휘저으면 빛의 출렁거림이 벽에 반사되도록 만들어 동화속의 주인공이 된듯한 환상을 연출하였다. 투명한 그릇에 물을 담아 각각 다른 높이에 놓고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주황 빛의 빛을 쏘아 오색 찬란한 빛의 화려함을 이뤄낸 이 작품은 따라간 아이들을 무척 신나게 했다.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가 아닌 '직접 휘저어 보세요' 였으니 얼마나 즐거웠겠는가?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객이 단지 보는 이에 머물지 않아 좋았다. 직접 체험을 통해 작가의 마음과 생각에 접근하여,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가 있었다. 작품에 따라 음향도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산산조각 낸 유리를 바닥에 뿌리고, 크고 작은 파편을 천장과 사방벽에 가느다란 철선으로 붙여둔 방은 우주의 천체공간을 그대로 들여놓은 것 같은 신비감을 주었다. 보라와 연두, 푸르고 누런 빛이 뒤섞인 빛의 꽃밭, 바로 그것이었다. 아름다운 영혼이 모여있는 공간, 잠시 숨을 멈춘다. 숨막히는 순간에서 뒷걸음질로 빠져 온다. 눈은 하늘의 별들에 둔 채.

"덥지?"

문득, 열기를 느껴 묻는 내게 "엄마 저기서 팬이 돌고 있어요"라고 딸아이는 대답한다. 역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민감하고 예리하다. 어둠 저 편 발코니에서 팬이 더운 바람을 내뿜

고 있었다. 나무로 만든 작은 난간은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도시의 휘황한 밤풍경을 구경하는 효과를 낸다. 높은 언덕길을 숨차게 올라 아기자기한 2층 집을 둘러 본 것 같다. 전시장을 역동적이면서도 이처럼 오밀조밀 재미나게 꾸민 이는 대단한 재주꾼이다. 관람자는 빙 돌아 숨어있는 작품을 만나 깜짝 놀란다. 잠시 후 캄캄한 어둠 속을 더듬어 구원처럼 다가오는 빛의 찬란함에 안도한다 전시장을 설계한 이는 이런 관람객의 심리적 반응마저 작품화한 것 같다. 어둠이 주는 긴장과 빛의 충격을 받아들이며 적당한 조바심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완벽한 공간설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찾아가 보았다. 설계자는 위가건축의 민선주씨였다. 마치 도시를 설계하듯이 설계했노라는 작가의 의도를 접할 수 있었다. 사실 서울 600주년 기념관은 하나의 도시였던 셈이다.

제2전시공간 : 극성하는 빛의 공간은 김승영, 오상길, 윤영석, 이기일, 조태병, 최우람, 허구성 씨 등 13명의 전시실이 있었다. 1공간과는 다르게 외곽으로 난 통로를 지나 전시실에 이르도록 짜였다. 관람자는 공간전체를 시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미 자신도 모르게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독립된 공간에서 만난 최우람씨의 [육족곤충]은 센서를 통해 관람자가 움직이는 대로 반응을 보인다. 괴괴한 사운드와 푸른 빛의 네온은 적극 반응을 유도한다. 홀로그램을 이용해 각도에 따라 그림이 사라졌다 나타나는 이주용씨의 [꿈꾸는 역사]역시 첨단의 기법을 보여준다. 어디선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신음소리인가? 무아경인가? 아니, 그 무엇이 내면의 소리를 숨기지 못해 토해내는 것인지. 그랬다. 정체모를 불안감은 바로 이 소리였다. 빛은 밝아서 제모습을 드러내지만 어둠은 그 반대다. 빛이 주는 아름다움과 밝음은 역설적으로 어둠도 강조하게 된다. 우리 삶의 밝음 뒤에 짙은 슬픔이 자리잡은 것처럼. 오늘날 테크놀로지의 다양한 쓰임새는 상상을 불허한다. 영화나 음악뿐만 아니다. 어쩌면 고전적인 의미의 미술품은 이미 잊혀진 계절이 되었다고나 할까? 돌아오는 차안에서 아이들과 예기를 나눠본다, 작품이 "재미있었다. 이상했다. 신기했다. 교실 환경구성이 이용할 아이디어를 얻었다. 땀이 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대답은 각색이었지만 핵심은 하나로 "개성만이 살 길이다."였다. 아이들은 이미 현대 미술이 가야할 방향을 알아버린 것 같았다. 꼭 꼬집어 말할 실력은 없지만 짐작은 가는 것 같아 데리고 다닌 보람이 있었다.

신세대는 영상세대요, 지금은 영상시대라 일컫는다. 분초를 다투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미술을 원하는가? 아니, 원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아직도 전시장에 가면 편안한 작품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오래 길들여 온대로 반응하는 것이다. 진보적인 작품은 낯설고 불안하다. 감정이 의식을 따라가지 못한다. 제법 전시장을 찾아다녔다는 관람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결과에는 전주지역의 화단도 책임이 크다 말하면 억지일까? 순전히 관람자의 무지와 촌스러움에 기인한 것인지 묻고 싶다. 전부는 아니나, 관람자들의 안목을 높이는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한다. 기대를 갖고 찾은 전시장에서 어쩐지 낯익은 그림, 어디서 본 듯한 그림, 누구랑 비슷한 그림, 더구나 과거의 작품을 또 보게 될 경우도 있었다, 그러고 보니 20여년전 일이 떠오른다. 결혼 기념으로 자문을 얻어 구한 것이 지역원로의 수묵 산수화였다. 몇년 걸어두고 보다 다른 작품으로 교환했다. 눈높이가 달라진 탓이다. 우리 전주시도 서울시 같은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향이라 목소리는 높아도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작가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돕고, 전시 공간을 제공한다면 이런 획기적인 전시도 가능하리라. 설레임과 기대로 12월의 나들이를 기다린다. 작품이 나에게 주는 선물, 온전한 하루의 행복을 위해.

나는 누구의 따뜻한 입김이 될까?

이 승 훈

1999.9.30-10.6 ▶민촌 갤러리

이경태님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세월의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유년시절이 나타나고 저 고대의 신들을 만난다.

소재 면에서는 어머니와 어릴 적 세상을 읽을 수 있으며 음악을 전면 혹은 후면에 깔아 놓고 그 위를 사뿐히 즈려 밟고 세상을 꿰매고 있는 것이다.

재료 면에서는 오래된 문짝, 나무, 동판 조각, 헝겊에 바느질까지 해야 되고, 유화 물감은 기본이고 아크릴 칼라와 수채물감, 돌가루 등 복합재료가 동원된다.

화폭은 반드시 네모난 규격안에 그림을 채우지 않고 자유로운 재료에 의도되지 않은 듯한 틀에 의도된 화면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폐품 같은 문짝이나 틀을 사용한다. 의자가 사용되기도 한다.

화폭속에는 유년의 동경과 아롱지는 사연들이 그리스 신화에 쌓여 나오기도 하고 가족과 사랑, 영혼의 지고한 뜻이 묻어 나온다. 눈이 내리지도 않으면서 눈이 내일 것 같은 샤갈의 [나와 마을]처럼 한 폭의 다큐가 하나씩 들어 있는 것이다. 김춘수 시인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시는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는 그림을 보고 시를 썼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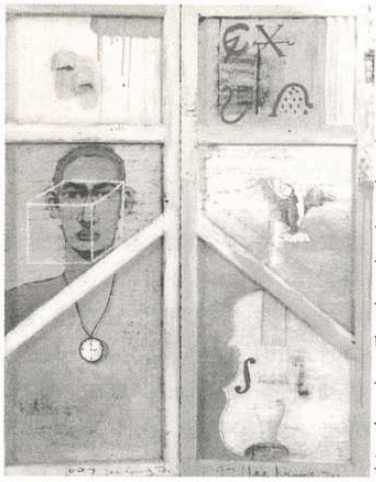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이경태님의 그림을 보면서 시로 읽었다. 그의 전시회에 책까지 펴낸 것으로 보아 그의 시적 경험은 그림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아니 작가적 체험이 시와 그림에게로 전이(轉移)되었을 것이다. 또한 음악도 좋아한다. 그 이상이다. 영화도 좋아한다. 그렇게 느낀 것이다. 휴머니스트이며 낭만적이고, 예술을 뒤집어쓰고 생활하는 도인 같은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의 작품 [희랍화병과 고양이 물루]는 그리스 도자기와 고양이, 해, 구름, 달, 꽃잎 문양이 그려지고, 도자기 안의 그림은 그의 글 [낭만주의자의 진실]에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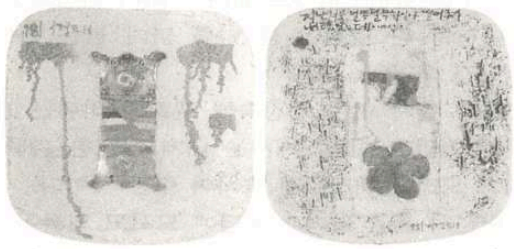
~견우별과 직녀별 사이를 유심히 관찰하면 목을 길게 빼고 금빛 날개를 펼치며 날아가는 백조좌를 볼 수 있다.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는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아내 헤라의 질투를 피하기 위해 언제나 백조로 변해서 지상에 내려 왔다고 한다. 백조로 변한 제우스와 레다의 사랑으로 2개의 알을 낳았는데 그 중 하나의 알에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절세의 미인 헤레네와 폴리데우케스가 태어난 것이다. ~ 멘델스존의 '한 여름 밤의 꿈'이 들려 오는데 호반의 밤하늘과 멘델스존이 주는 아름다운 조화는 어쩌면 낭망주의자들의 진정한 페이소스이리라~

혼탁한 세상을 아름답게 살기 위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떠오른다.



[과거로 가는 비상구]를 보고:

몰락의 시대에 숨가쁘게 사는 곳에서 탈출을 시도해봄직한 것을 느끼게 한다. 우린 언제나 흔미하고 탁한 세상에 있어도 맑은 한줄기 빛을 기억하게 한다. 평화를 기원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하며 이상미를 추구하고 건전한 양식과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자 한다. 이 그림에서 신비한 비상구가 생각난다. 어디 자연의 병원에 가서 긴급 수혈을 받고 풀리지 않은 기호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것이다.



[겨울 별똥별]을 보고:

고요하고 무심한 바람이 몰려 있다. 지상에 가까워 오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다. 말뚝까지 으스스한 황량한 들판에 눈물로 얼룩져 흐르는 추억을 발하고 있다. 지금 별똥별은 100년 전에 부서져 내리는 것이라 한다. 우리의 사랑은 이미 약속된 과거의 오매불망 그리운 눈길이었던 것이다. 클로버 사랑이 이 계절 초입(初入)에 더욱 선명하다. 나는 누구의 따뜻한 입김이 될까 하고 별똥별이 기인 선을 긋고 너에게 다가선다.



[저장된 사랑] 을 보고:

차 한잔을 들면서 [저장된 사랑]을 하염없이 즐기니 몇 가지 단상이 떠오른다. 각기 살아온 세월을 밑천으로 새로운 만남을 계획하는 자들로 읽어진다. 지속된 아름다움의 향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 실마리는 열쇠를 표현함으로써 더욱 그렇다. 문살 속에 들어박힌 조각 그림들은 유년과 학창시절의 친구, 되돌릴수 없는 아픔과 희열이 주마간산(走馬看山)처럼 지나가는 것이리라. 지나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쯤 간직되어져 있을 뿐, 찾지 않은 것이다. 문만 열면 나의 마음 몸짓이 비밀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깊이 '저장된 사랑' 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경태님의 "글로 쓰는 그림" 中에서
1편을 소개합니다.

어머니와 신작로

이 경 태

어머니께서는 내유년의 끝무렵에 한많은 생을 마감하셨다. 정확히 6년이라는 세월을 병마와 싸우다 결국 아무런 감정도 남겨놓지 않고 당신은 떠나가셨다. 암세포는 당신의 연약한 몸에 전선줄처럼 퍼져 있었고 수술만이 유일한 희망인냥 어머니께서는 G병원에 입원하셨다. 아무런 주관이 성립되지 않았던 유년의 길목에서 어머니의 실체만큼이나 뚜렷한 형상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길이 나의 의식을 지배했다. G병원으로 이어지는 그 길은 다른 세상으로 나를 인도하는 듯했고, 신작로를 따라 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땐 언제나 어머니와 신작로는 같은 빛깔이 되어 낯설은 존재로 내게 다가왔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바라본 그 길의 존재는 세월만큼 변해있었는데 그 변함의 진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어머니께서 퇴원하던날, 당신과 함께 되돌아오던 멀기만 했던 그 길의 기억,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보고 가을을 느꼈던 것일까?

한없이 코스모스와 G병원의 뒷산을 응시하시던 어머니. 왼쪽 유방을 도려낸 창백한 어머니의 모습은 흔들리는 코스모스와 맞닿아 있었고,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걸었던 하얀 신작로의 기억은 나의 홀로서기로 향한 시작을 의미했던 것 같다.

그 후 당신은 의식만 남겨둔 채 일어나질 못하셨고 운명처럼 나는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을 내 유년의 기억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많은 세월이 지났고,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초상은 내 의식속에 아련한 안개로 다가왔다가 백지를 남길 뿐이었고 내 스스로 어머니를 불러들였을땐 이미 아내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다. 아내가 아들 수함에게 주는 애틋함을 볼 때마다 나는 어머니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의도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억 속의 어머니는 실체처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창을 통해 볼 수 있는 곳에 침묵으로 계셨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습관처럼 묘지를 응시하면서 삶과 예술에 대한 깊은 사고를 하곤 했는데 안식으로 존재하던 어머니의 묘도 시간과 제도 앞에 무력하게 자리옮김을 하게 되었고 23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오랜 세월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멀고 멀었던 신작로를 생각나게 했다.

인간은 흙에서부터 태어나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자연의 섭리 앞에 아련한 기억 저편으로부터 다가온 하얀 신작로는 어머니와 동일한 의미로써 내게 한가지 무채색 교훈을 열어주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정직한 실천주의자로 살다가 떠나 가자고.....

당신의 한 많았던 생 만큼 붉디 붉은 흙으로 돌아간 어머니.

그리 길지 않은 시간속에 윤회의 바퀴는 돌아가고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내게 완전한 삶을 살다가 오라고 애잔하게 속삭여 주신 것이다.

당신의 흙을 담아 납골당에 모시고 되돌아오는 길에 시리게 피어 있는 코스모스를 보면서 나는 소리없이 울었다.



내 유년에 이미 묻어버렸던 어머니, 코스모스, 그리고 끝이 없어 보였던 하얀 신작로

그 길을 생각하면서.....

(이경태님의 "글로 쓰는 그림" 中에서)

정말 아름다운 동해안으로의 휴가

이 진 숙



월요일부터 시작된 그의 휴가는 가는 날부터 시작된 비가 오는 날까지 끝이 없었다. 월요일 오전 10시쯤 출발하기 위해 준비 중에 같이 근무하는 은선생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랴부랴 장례식장에 가서 조의금을 전달하고 88고속도로를 향해 출발했다. 그는 전날 먹은 술 탓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여서 휴게소에 들로 다슬기 탕으로 속풀이를 하고 떠났다. 가는 길에 지리산 휴게소에 들러 볼일을 보고 룸미러가 이상이 있어 조정을 한다는 것이 그만 망가져서 인월에 들러 수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였다. 한가한 고속도로를 둘이서 가는 것도 괜찮았다. 대구에 들어가서는 길에서 약 2시간을 소비하였다.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다. 포항을 지나 드디어 동해안 도로를 타게 되었다. 탄성이 절로 나왔다. 길 바로 옆에 있는 파란 바닷물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정말 하찮은 일들로 다가왔다. 작은 동네 부두에 정박해 있는 고깃배, 우리처럼 휴가를 온 사람들, 한적한 어촌의 모습을 한 동네 등등. 왜 사람들이 휴가를 동해안으로 가려는지가 실감이 나는 장면이기도 하다.

한참을 달리는 동안 주유소를 찾지 못하여 애를 달기도 하고..... 드디어 찾아간 곳이 고래불 해수욕장이었다. 동네에서 개발한 해수욕장(동해안은 거의가 동네에서 개발하여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지만)이라서 깨끗하고 친절하였다. 저녁에 매운탕으로 맛있는 밥을 먹었다. 신혼 때 집 한 채 장만한다고 텐트를 샀었다. 그것을 가지고 정말 안간데 없이 다 다니면서 내 집을 자랑하곤 했었는데 그것도 나이를 먹으니 망가져서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거의 20여 년만에 장만한 텐트를 가지고 신혼 때의 그 기분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한참을 해매인 끝에 드디어 내 집이 지어졌다. 아이들 마냥 그곳을 들락날락 하면서 좋아하였다. 해변가에서 듣는 파도 소리는 나를 마치 사춘기 소녀로 돌아가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저녁에 바닷가에서 둘이 앉아있는 기분도 좋았고 조용한 그곳 분위기도 아주 일품이었다. 그런 기분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먼저 아들 녀석에게[전화를 걸었다. "기룡아 여기 동해안 파도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지!"그리곤 또 다시 다이알을 돌렸다. 올해 초 미국에 간 딸아이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다. "지은아 파도 소리 들리지? 정말 아름답다. 하늘에 별들이 너무 총총히 떠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해먹고 있는데 비가 약간 비치는 것 같아 부랴부랴 서둘렀다. 다행히 비는 세지 않았다. 다시 짐을 싸고 출발하여 계속 북쪽을 향해서 올라갔다 금강산 배를 탄다는 동해시를 지나 울진 원자력 발전소 구경도 하였다. 깨끗하게 해놓은 모양이 원자력이라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가는 곳곳마다 비를 무릅쓰고 차를 세우고 옥수수를 산다. 복숭아를 산다. 수박을 산다 하며 부산을 떨었다.

한참을 가다 쉰 곳이 정동진이었다. 우리도 젊은이들 마냥 그곳을 둘러 조각공원에서 갖가지 모양을 내면서 포즈를 취하고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듯한 착각에 빠져 들기도 하였다. 전망대에 서서 바닷가를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하였다. 역시 여행이라는 것은 사람을 마냥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다. 신작로와 철길이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나있는 곳이었다. 경포대를 가기 위해 정동진을 뒤로 하고 달리기 시작하였다.

강릉으로 향하는 도중에 아들과 경포대에서 만나기로 했다. 강릉에 들어서니 비가 시작되었다. 아들을 기다릴 겸 강원도 음식으로 점심을 먹기로 했다. 말로만 듣던 춘천 막국수를 강릉에서 먹었다. 원래 면 종류의 음식을 좋아해서도 그랬지만 비가 오는 강릉에서 먹는 맛국수의 맛은 정말 일품이었다. 태풍이 온다는 예고가 있었다. 그것을 예견이라도 하는 듯 비는 줄기차게 내렸다. 경포대 입구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 아들과 만날 수가 있었다. 모처럼 식구가 객지에서 만나니 정말 반가웠다. 잠자리를 정하고 나서 경포대를 구경하고 저녁을 먹고 모래사장의 특설무대에서 블랙홀이라는 록그룹의 연주가 있었다. 젊음은 정말 위대한 것이다, 그들의 공연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몸이 흔들어지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였다. 비가 간간히 내리는 중에 열린 공연은 멋있었다. 다음날 늦은 아침을 먹고 강릉을 출발하여 안개가 자욱한 대관령 고개를 넘어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쉬어 점심을 먹고 녀석과는 호법분기점에서 헤어졌다. 오는 길은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졌다.(전조등을 킨 차들이 겨우 보일 정도로) 청명한 날에 가는 휴가도 좋았지만 빗속에서 즐긴 휴가는 정말 낭만적이었다. 둘이서 떠난 휴가는 아무런 부담없이 일상을 훌훌 털어 버리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차 속에서 그와 나눈 많은 이야기들은 평소에 하지 못하였던 것들이었다.

햇빛이 찬란했던 동해안의 고래불 해수욕장 슬프도록 아름다웠던 비오는 경포대 바닷가의 밤바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젊은이들의 공연, 정말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추억을 만들어준 여행이었다. 기회가 다시 온다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추억 여행을 하고 싶다. 정말 아름다웠다.

금강산을 다녀와서

이 철 규



우석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금강산 스케치 여행에 작가 선생님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반세기 만에 열린 금강산 길을 가게 되었다. 가곡이나 화폭으로 아니면 TV로나 어렴풋이 접할 수 있었던 금강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리라!

특히 한국화를 전공하고 있는 나로서는 금강산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보고 느끼는 관광 차원 이상의 회화사적 이유가 더 한층 크다 할 수 있다. 금강산이 있었기에 조선후기 한국회화사에 가장 독창적인 한국적 화풍의 첫 등장을 알리는 실경화풍(겸재화풍)의 산수가 태동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산수화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우리의 산하를 직접 사생하여 그리는 실경산수의 등장은 바로 금강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겸재가 있었기에 실경산수가 탄생된 것이 아니라 금강산이 있었기에 그 빼어난 자태로 인하여 겸재로 하여금 실경산수를 제작케 하였으리라! 이렇듯 금강산은 한국회화사에 실경산수의 등장이라는 결정적 매개체 역할을 한 名山이며 美山인 것이다.

4월의 봄바람과 함께 동해항에서 금강산 유람선(봉래호)에 몸을 실었다. 유람선의 시설은 아주 쾌적하고 온갖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초저녁에 출발한 봉래호는 다음날 새벽에 비바람과 함께 장전항에 도착하였다. 장전항까지 이어진 금강산 자락은 금강산에 대한 설레임을 더 한층 돋구게 한다. 비바람 속에서 어설피 보이는 장전항의 첫 인상은 회색 빛 시멘트 색깔로 뒤덮여 있었다. 금강산 자락의 힘찬 바위산과는 대조적이었다. 우리나라 60년대의 항구를 보는 듯 회색톤 분위기는 북한의 경제사정을 한눈에 느낄 수 있었다. 어느덧 비바람은 진눈개비로 변해 있었다. 금강산은 철따라 고운 이름으로 갈아입는데- 새순이 돋고, 꽃봉우리 벙그는 봄은 금강(金剛)! 풀과 나무가 우거지는 여름은 봉래(蓬萊)! 단풍이 붉게 타는 가을은 풍악(楓嶽)! 하얀 눈이 온갖 바위 위에 내리는 겨울에는 개골(皆骨)! 등으로 불리워 왔다.

입국할 때에는 봉래호에서 바지선으로 갈아타고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비바람에 몹시 흔들리는 바지선은 북한 땅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는 흥분과 조바심으로 더 한층 갈증을 더하게 해준다. 간단한 입국 수속을 마치고 현대에서 제공하는 관광버스에 승차하였다.

조장의 간단한 금강산 소개가 있었다. "금강산은 주능선을 경계로 바다 쪽인 동쪽을 외금강, 서쪽을 내금강이라 하는데, 금강산의 큰 절경들은 대부분 외금강 쪽에 있다. 금강산의 동쪽은 가파르고 서쪽은 비교적 완만한 경동지괴(傾動地塊)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만물상, 관음연봉, 채하봉 등의 준봉들이 변화무쌍한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골짜기들은 내금강에 비해 훨씬 가파르고 스케일이 큰 폭포들을 간직하게 되었고, 아슬아슬한 절벽 위에서 쉼없이 떨어지는 희고 시린 물줄기들이 골짜기마다 깊고 푸른 소(沼)와 담(潭)을 무수히 만들어 놓았다" 장전항에서 금



강산으로 들어가는 관광코스는 구룡연, 만물상, 해금강 코스 세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구룡연과 만물상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 첫날은 구룡연 코스로 일정이 잡혀 있었다. 장전항에서 온정리 휴게소로 가는 길은 양쪽 도로변에 외부인과의 접촉을 막기 위함인지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100여 미터 간격으로 부동자세로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실제 처음으로 본 북한군인 이었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 손은 꺼칠었으며 얼굴은 붉은 홍조빛을 띤 어린 모습이었다. 아주 인상적이었다. 눈이 계속해 내리고 있었다. 눈과 함께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향하는 길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4월에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철책 너머의 온정리 마을은 장전항의 축소판이었다. 온통 회색빛 색의 똑같은 집들, 드문드문한 인적으로 삭막한 느낌이었다. 그래도 생기를 느낄 수 있었던 모습은 가끔 하교길의 목에 빨간 마후라를 걸친 어린 소년이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는 모습이었다. 관광 안내원의 멘트가 흘러나온다. "북한 주민을 만나면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북한 주민을 만나면 손을 흔들어도 되는지 안되는지 어색하기만 하였던 우리들은 이때부터 북한 주민을 만나면 손을 흔들어 주기 시작했다.

온정리 휴게소에 도착하였다. 현대에서 건설한 이 곳은 마치 북한 내에서 이국 땅에 온 느낌이다. 편의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었다. 눈은 함박눈으로 변해 있었다. 구룡연 관광이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한두시간 정도 늦겠다는 방송이 있었다. 점심식사후 한시간 반정도 지난 후에야 구룡연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금강산 입구에 도달했을 즈음 창터 솔밭을 지나게 되었다. 직선으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온통 붉은 빛의 소나무들(일명 미인송으로 불리운다)이 몇백 미터에 걸쳐 계속되고 있었다. 붉은 장옷을 걸친 여인네랄까? 수줍은 듯 쭉쭉 뻗어있는 모습은 저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창터 솔밭을 지난 후 몇 분만에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눈은 계속해 내리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남보다 빨리 금강산을 오르고 싶은 급한 마음에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다.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힌 금강산을 오르는 심정이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 가쁜 숨은 더욱 더 가슴을 벅차게 한다. 등산로 곳곳에 비석이 서 있었다. 몇년 몇월 몇일에 김일성이 금강산에 와서 중간중간 쉬면서 교지를 내린 곳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비석 주위에는 항상 여성 안내원이 이인 일조로 지키고 있었는데 연신 내리는 눈을 맨손으로 비석에서 쓸어내리고 있었다. 조장의 설명으로는 특히 이 비석 주위를 신성한 곳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일미터 이내도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주의를 주었다. 곱슬 파마 머리에 붉은 홍조를 띤 북한 여성 안내원은 천진난만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청순한 모습은 남남북녀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차례에 걸쳐 북한 안내원과의 대화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터라 약간은 겁이 났지만 말 한마디 걸고픈 심정에 '여기 금강산은 4월에도 눈이 이렇게 많이 옵니까?' '글쎄요, 4월에 종종 눈이 오긴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온 것은 몇 년만에 처음인 것 같습메다.' 청량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다. 뒤따라 올라오던 관광객들도 이 모습을 보고 용기가 났는지 질문을 해대었다. 몇 개의 조그마한 숲을 지나자 눈으로 뒤덮인 산 봉우리들이 설픈 운무에 휩싸인 채 모습을 나타내었다. 장관이었다. 숨이 콱콱 막힐 지경이었다.

등산로는 계곡 사이로 훤히 뚫려 있었다. 구름다리를 지나 다시 한 두 개의 계곡을 지나자 구룡연에 도착하였다. 길은 그 곳에서 눈으로 덮혀 보이지 않았다. 상팔담을 거쳐 구룡폭포까지 가게 되어 있었는데 제설작업이 되어있지 못했다. 여기서 돌아가야 하다니! 아쉬웠다!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 위에 벌렁 누웠다. 구룡연에 내 몸 도장이라도 찍어 놔야지! 다음에 새 파란 구룡연물을 보기 위해 꼭 와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은 금강산의 대표적 경치라 할 수 있는 만물상(萬物相) 코스로 가게 되어 있었다. 어제와 같이 출입국 관리소를 거쳐 관광버스에 몸을 실었다. 외금강 만물상은 주상절리(柱狀節理)를 이룬 흑운모 화강암들이 창날같이 모여 서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만상을 펼쳐 놓아 친근함과 동시에 감동을 더해 준다는 조장의 안내말이 있었다.

날씨는 화창하게 개어 있었다. 전날과 같이 온정리 휴게소에 도착하여 점심을 같이 한 후 곧바로 만물상으로 향하였다. 동양화 산수에 있어서 모든 준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만물상으로....

꼬불꼬불 가파른 고갯길을 넘어가는 길은 구룡연 코스에 비해 훨씬 험하였다. 창가 옆으로 펼쳐진 암벽으로 뒤덮힌 금강산의 모습은 인간의 존재를 초라하게 할 뿐이다. 오죽했으면 조선조 화가 최북이 금강산에 와서 자기눈을 찔렀을까? 주차장에서 만물상으로 오르는 등산로는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중턱부터 걸어 올라 가야 했다. 허벅지까지 쌓여 있는 눈사이로 겨우 한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나 있었다. 산행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만물상 코스는 옥류



동 코스보다 험난하였다. 몇몇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중도에서 포기하곤 했다.

등산로를 따라 양옆으로 기괴한 모습의 바위산들이 병풍같이 쳐져 있었다.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이 하늘을 찌를 듯 중첩되어 있는 모습은 조금씩 올라가면서 볼 때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다. (금강산의 뼈대를 이루는 바위들은 대부분 흑운모(黑雲母) 화강암과 반상(斑狀) 화강암으로 빛의 방향에 따라 눈처럼 희게도 보이고, 금색이나 은색으로도 보이고, 푸르거나 보라빛으로 보이고 검게도 보인다고 한다.)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욕심 같으면 가지고 간 스케치 도구를 꺼내 그림을 그리고 싶었으나 시간이 허락치를 않았다. 폭설 때문에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 한 사람 지나 갈 정도의 좁은 눈길도 만물상 입구에서는 끊겨 있었다. 멀리서나마 만물상의 끝 부분을 볼 수 있었다. 옛 선조들의 그림에서 볼 수 있었던 삼선암, 귀면암, 칠층암, 절부암 등을 눈앞에 두고 가 볼 수가 없다니

날씨를 원망할 수 밖에 없었다. 하산하는 길! 마음은 만물상에 있는데 몸은 더욱 더 멀어지고 있었다.

황산기행

류 일 선



황산2

내겐 말만 들어도 맘 설레이는 게 여행이다.

숨가쁘게 줄달음치는 경쟁의 질곡을 탈출하여 인간성 회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하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가 여행에 대해 더욱 절실함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바쁜 일상에서의 천두만서(千頭万緖)같은 일들을 여행을 통하여 풀어 보는 것도 젊은 내일을 위한 현명한 재충전의 기회마련과 장이 될 수도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나는 현장사생을 빌미로 자주 야외로 나다니는 편이다. 현장에서 느끼고 받는 감흥은 작품을 살아 있게 만들기 때문이며,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나태하지 않아서 좋다. 짧은 인생살이를 좀더 고민하며 남보다 더 많이 보고 느끼며 경험해야 인생 느즈막길에서 혹시 좋은 작품이 나올지도 모르지 하는 기대감 때문이라면 큰 욕심일까?

금년에는 국제미술 행사참여와 국외 미술기행으로 비교적 많은 외유를 했다. 모두 특별한 기억이 남아 있지만, 우선 중국 미술기행중에 들른 황산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소개하도록 한다. 특히 황산은 내가 중국 유학시절 오랜기일을 산상과 주변에서 보다 자세한 것을 많이 보고 체험하며 사생했고, 그림으로 표현한 사생작품들을 칭따오 박물관에 초청받아 전시한 경험이 있기에 애정과 기억이 남다른 곳이다.

황산(黃山)은 방위 동경 118.09도, 북위 30.08도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안휘성(安徽省)남부에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다. 면적이 약 1200평방 키로미터이며, 현재 개발된 정화 부분이 154평방 키로미터이고, 주위 120키로미터에 이르며, 크고 작은 72개 봉우리가 솟아 있다. 황산은 단 하나의 정상을 가진 하나의 큰산이 아니고, 72봉 가운데 1500미터 이상인 봉우리가 30여개나 되며 등산로는 모두 돌로 만

든 계단으로 가파른 봉우리 사이를 오르 내리기가 퍽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운해가 많아서 황해(黃海)라고도 불리웠는데 연화봉-1860m(蓮花峰). 천도봉-1810m(千都峰). 광명정(光明頂)은 황산의 3대 주봉으로 해발 1800미터 이상의 균일한 고도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천혜의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고 있는 황산은 봉우리와 조화를 이룬 자연 그 자체가 한 폭의 그림이며, 경치에서 느껴지는 감성이 시로 표현되는데, 옛부터 황산의 아름다움은 유명한 시인 이백(李白). 두보(杜甫)등에 의하여 칭송되고 묘사되었다.

그렇다면 황산을 어떻게 갈수 있는지 교통편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한다.

- 국제선일 경우

1.북경 방면에서 입국- 비행기 또는 기차로 남경, 상해,항주,황산시에 도착하여 버스를 이용.

2.상해방면에서 입국- 비행기 또는 기차로 항주,황산시에 도착하여 버스이용,혹은 장거리 버스로 직접 도착,

3.광주 방면에서 입국-비행기 또는 기차로 항주,황산시에 도착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국내선의 경우

장거리 버스,기차,비행기,선박이 모두 가능하다.참고로 주요시에서 황산까지의 거리를 보면 상해-465Km, 남경-321Km, 무호-218Km, 항주-283Km, 구화산-207Km, 선주시-186Km, 황산시-79Km이다. 될 수 있으면 황산만 보고 오지 말고 황산 주위에 있는 명.청시대의 고적민가라든가 제운산,기타 유적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생각보다 폭넓게 볼거리가 많이 있다.

황산의 등산 루트를 살펴보면 지금 개발되기 이전인 95년 내가 사생할 때만해도 대략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산위의 북해에 도착하고, 어떻게 돌아가야 온천 여관구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즉 먼저 등산(온천-옥병루-북해), 다음에 하산(북해-운곡사-온천)을 비교적 쉬운 코



황산1

스로 생각하고 활용 했었다. 산록의 온천구(溫泉區)가 등산기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두 갈래의 큰 등산로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번에 이용한 자광각에서 옥병루 코스와 배운정에서 송곡암 부근에 신설된 케이블카가 다양한 코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는 등산로는 황산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티엔뚜펑(天頭峰)과 리엔화펑(蓮花峰)이 있는 위펑러오(玉屛樓)를 경유하여 가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운곡사를 경유하여 가는 길이다. 이 길 모두는 반환점이 되는 북해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옥병루를 황산의 현관이라고 생각하며 하이라이트로 손꼽고 있는 이 코스에 케이블카가 생겨 남녀노소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온천구에서 북해까지



황산3

는 어떤 루트를 택하던지 30Km,옥병루,운곡사까지는 약 15Km에 위치해 있다.

일반적으로 황산을 등정할때는 온천지구에서 머물고 아침일찍 차편이나 도보로 운곡사까지(7.5km) 와서 케이블카를 타고 백학령까지 가면 북해까지 쉽게 도달할수 있다. 북해에는 북해호텔과 그 주위에 싼 여관이 두어개 있고 아침일출은 이 근처 청경대나 사자봉이 제일 좋고 기타 관명정 710T.V탑에서 보면 좋다. 옥병루 또한 일출을 볼 수 있는 경관지이다.

북해에서 서해를 경유하여 광명정, 연화봉, 옥병루, 천도봉을 돌아 보는 동안 쉴새없이 감탄사가 연출된다. 보는 사람과 위치에 따라서 천태만상의 사물이 되어 붙여진 이름만 하여도 적은 수가 아니다.이름이 지어진 바위의 전설 또한 재미있다. 배운정에서 광명정으로 오르다보면 중간에 비래석이 있다. 하늘에서 날아와 앉아있다는 비래석. 이곳에서 바라보는 갖은 군봉들이 갈길 바쁜 발목을 붙들고 있다. 광명정에 올라서면 코앞에 710T.V탑이 있고, 황산의 3대 주봉인 연화봉(1860m)과 천도봉(1829m)이 보인다. 제일 높은 연화봉에 올라서서 감상하는 자연경관과 천도봉에 올라선 또 그 나름대로의 느낌과 형상이 백양백색이다

천도봉은 가파르고 위험하여 바람이 심하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과 겨울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곳이지만 가급적이면 꼭 올라가보면 아주 명관이다. 아래서 치켜올려다 보면 경사가 심해 매우 위험하게 보이나 백보운제(百步雲梯)를 따라 올라가는 재미와 스릴이 여느산 봉우리에서 느낄수 없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정상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사방경관과 또하나의 정상을 딛고 있는 정복의 쾌감은 오르면서 등줄기를 적셨던 땀을 시원하게 씻어내 버리게 한다.

청량대에서 바라보는 십팔나한이 그렇고 사자봉, 비방봉, 낙타봉, 선보봉 등과 배운정에서 바라보는 서.북부 경관도 빼놓을 수 없는 경관이다.

수없이 많은 형상과 거기에 맞게 붙여진 이름들이 정말 그럴싸하다. 그래서 황산은 "천하제일기산(天下制一奇山)"으로 불리운다. 누구라도 쉽게 눈에 띄는 것은 어떻게 괴기하게 생긴 바위덩어리들

이 자연과 잘 조화를 이뤄 갖은 형상을 하고 있고, 그 바위틈새로 오묘하게 자란 소나무들이 그렇게 부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공감하게 된다. 특히 비가 온 다음이나 새벽에 운이 좋으면 각 계곡에 피어 있는 운해를 바람따라 꿈틀거리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안개사이로 감추어진 뒷배경의 괴암괴석이 바람에 따라 잠겼다가 하늘로 치솟는 새로운 형상은 비쳐지는 형상을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환상의 모습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봉우리 사이로 물이 흐르듯 요동하는 운해.....

금번 사생에서는 가장 절정기의 장관들을 볼 수가 있어서 좋았다. 황산의 3대 주봉에서 천변만화는 장관을 이동중에 보면서 또 그림을 그리면서 감탄사를 연발했기에 운수대통한 것이었다. 95년때 나는 보름정도의 이곳 스케치 일정에서 비가 오는 마지막날 비 때문에 하산할 수 없어 하루를 연기한 끝에 지켜본 운해의 장관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환희였다.

황산의 운해는 이른 봄과 비온 뒤 운이 좋은 경우에 볼 수 있다는데, 이곳에서 만난 홍콩의 사진작가 두분의 얘기는 황산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계절별로 이곳에 왔으며 오늘의 운해를 보기위해 한달을 이곳에서 묵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내가 행운아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년도 미술기행때는 첫날 운해의 장관까지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을 지녔으랴!

황산은 3기(三奇)라고 하여 소나무(松). 바위(石). 구름(雲)과 4절(四絶)인 소나무(松). 바위(石). 구름(雲). 온천(溫泉)의 경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황산에 가서 3기 4절을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신이 만들어낸 공력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상이 이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것은 동물, 어떤 모양은 사람, 어떤 곳은 사물의 형상으로 보여 그야말로 천변만화(千變萬化)가 이뤄지고 구름은 호수와 같이 조화를 부리기에 어느 안내책자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소나무,바위,구름 이 세가지가 힘을 합하여 푸른하늘과 대지를 영상화하여 수없이 많은 생생한 장면을 우리의 눈앞에 전개한다고 말이다.

사실이지 푸르고 곧게 뻗은 소나무에 기기형형으로 생긴 바위와 바다같은 형상의 운해가 조화를 이루어 한폭의 살아 움직이는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이때가 진짜 황산의 진면목을 보게되는 것이며 절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탄복하고 만다. 옛부터 오늘날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 황산을 다녀갔으며 그많큼 많은 찬미적 시구와 찬사를 남기고 있다고 한다. 이미 명대의 저명한 지리학자이며 여행가였던 쉬시아커(徐霞客)는 30년에 걸쳐 중국의 산하를 편력한 이후,황산을 "산을 보려거든 오악(五岳-泰山타이산, 衡山헝산, 恒山헝산, 嵩山쑹산, 華山화산)을 보아야 하고, 황산을 보고나면 그 오악조차 볼 필요가 없다."라고 극찬을 했다고 한다.

정말인지의 사실 여부는 본인 스스로 기회를 잡아 감상을 통하여 결론지어야 할 일이다.

황산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면 한이 없다. 아쉽지만 여기서 접기로하고 여행자를 위해 몇가지 참고사항을 일러두고자 한다.

1.상식적인 얘기겠지만 자연보호와 환경위생에 철저하여 휴지등을 함부로 버리면 벌금을 내야된다.

2.숙소를 잡을때에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이 다르며 요금을 깍을 수 있다.

3.산상에서의 음식 및 물품은 비싸기 때문에 등산할 때 미리 준비한다.

4.지도를 꼭 준비하여 등반하고,일정에 따른 코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지역 화랑가 안내

서신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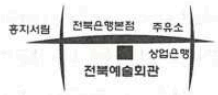
주소: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32-2 새터 B/D B1 전화:255-1653
전시면적-본 전시장(약 40평)/아트샵(약12평)
대관료:유료대관-1일 10만원 (상시접수)
무료대관:포트폴리오 심사(매년 12월 중순까지 접수)
초대전-년6회
기획전-상·하반기 2회 실시
2000년도 기획행사- 1月 새로운 세기, 정착과 비정착에 관한 12개의 팜플렛전
3月 프린트 프리젠테이션- 판화8인전
8月 기획대관-젊은 시각전

한마음 갤러리



주소: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48-9 전화:220-1200(원장실)
전시면적:7층 전시실 13평에 병원 전체에 전시가능(복도)
대관료: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소정의 작품을 감사의 표시로 증정할 수도 있음
2000년도 기획행사:1月 소나무 그림전, 상춘회 그림전

전북예술회관



주소: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2가 104-5
전화:284-4445, 286-2679 Fax)286-2678
전시면적:1층 1실(96평)·2실(57평)
2층 1실(66평)·2실(47평)·3실(47평)·4실(33평)
대관료:평당 500원
2000년도 기획행사:5月 전라북도 미술대전
9月 예술제

삼성문화회관



주소: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화:1층 270-2241
2층 270-2459 ARS안내 252-9400
전시면적:1층. 2층 각 100평
대관료:1일 기준 대관료 10만원, 수도료 3만원, 전기료 7만원, 냉난방기 9만원
2000년도 기획행사:미정

얼 화랑



주소: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138-3
전화:285-0323
전시면적:총 43평
대관료:1주 80만원
2000년도 중요 기획행사:1호 그림전, 뱀띠전

전북지역 화랑가 안내

민촌 Art센타



주소: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546-51 전화:275-0695, Fax)252-5878
전시면적:100평/25평
대관료:1일 20만원/10만원
2000년도 기획행사: 4월 공개누드크로키(남성)
5월 티벳트 불교자료전
8월 한지대전
10월 박남재 초대전
※ 연극 1.25~2.21 카뮤에 사랑 -극단 황토-
부대시설:찻집, 민촌가든, 주차장 150대-무료, 잔디밭 100여평(행사)

전주대학교 화랑



주소: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전주대학교 예체능대학 미술학과내
전화:미술학과 사무실 220-2732
전시면적:80평
대관료:1일 20,000원, 전시기간 자유
2000년도 기획행사:9월 졸업작품전, 11월 교수 작품전,

우진문화공간



주소: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21 전화:282-7227
전시면적:40평
대관료:1일 20,000 1주 100,000
2000년도 기획행사:2월 판소리 다섯마당의 멋, 3월 신예작가초대전
10월 젊은작가초대전(미술강좌 매주 화요일)
※ 미술클럽-매월 미술관 기행, 우리소리 우리가락

대곡리 미술관



주소: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43
전화:(0673)643-1505/ 011-684-1505
전시면적:25평
대관료:무료
2000년도 기획행사:5월 개관기념전

다문 전시공간



주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2가 82
전화:(0652)288-8607
전시면적:15평
대관료:무료
2000년도 기획행사:9월 산조축제

오궁리 미술관



주소:전북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45
전화:(0673)643-7620/ 643-2545

이승훈 [redacted]

이우정
이진숙

이철규
이환배

정미현

최병남

편 집 후 기

이 땅의 젊은이에게 글을 준 이용엽 선생님과 많은 원고를 보내준 필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회화 결성 10주년을 맞이하여 채찍의 말씀을 주신 이철량 교수님에게도 절을 올립니다. 더욱 뜻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의 산문집에는 감상에 관련된 글이 나온다. 골동품을 감상할 때 꿰뚫어보는 식견과 온갖 진위를 변별할 수 있어야하고 창조적 사고까지 겸해야 감상을 잘하는 것이다. 한 예로 골동 그릇을 팔려고 했으나 3년이나 지나가도 팔지 못한 돌 같은 것이 이었다. 이 것은 술잔으로 쓰기에는 비뚤어진 형세이고 기름때가 광택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여오라는 사람에게 가져가서 보여준 결과 이 돌은 옥 다음으로 좋은 것이라는 판단 하에 8천을 주고 샀다고 한다. 돌의 기름때를 닦아 내니 돌의 주름이 살아나고 가을날 연잎이 마르면서 그 잎이 말아놓은 것처럼 만든 붓씻개 이었다. 여오는 "천하의 물건 가운데 그릇으로 쓰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 적당한 용처를 얻어 사용하기에 달렸을 뿐이다. 항상 보는 눈을 높게 가져야 여러 견해가 나온다. 전북회화 7호가 나오게 되었다. 미흡하지만 미술에 두루두루 좋은 안목과 용기를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鄭)

발행 · 편집인/정미현
편집위원/이환백, 이승훈
전북회화회 1999년 통권 제7호
발행일/1999. 12. 17
[redacted]
기획 · 제작/네모디자인 디자이너 [redacted]

1999. 전북회화회 정기총회
-일시 : 1999.12.23
-장소 : 민촌

2000년 전북회화회 활동계획
1.5~1.14 1999vs2000 서울전-덕암미술관-
1월 1999년 활동 반성 및 보고, 회계결산
신입회원 추천 및 심의
2000년 회장 선출
2월 동계세미나 및 특강
신입회원 환영회

전북 회화

1999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이 책자는 문예진흥
기금에서 지원 받았음